



<b>코스피</b> 3149.93 (+1.64)	<b>코스닥</b> 980.29 (+1.16)
<b>금리</b> (연평균) 0.981 (+0.002)	<b>환율</b> (원/달러) 1098.00 (+2.90) (14일)



**[뉴스]**  
상반기 롯데 VCM  
신동빈 회장  
명백한 미래비전 주문  
02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1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 혁신 총망라, 99만원대 '갤S21' 베일 벗다

###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1

3개 모델로 핑크 등 총 6종 컬러 울트라, S시리즈 최초 S펜 지원

갤럭시S21이 전문가급 카메라를 앞세워 올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나선다. S펜을 지원하는 등 활용성도 대폭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온라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을 열고 갤럭시 S21을 공개했다.

갤럭시S21은 올해 출시되는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21일까지 사전 계약 후 29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갤럭시 S21 울트라 3개 모델로, 가격은 99만9900원에서 159만9400원이다. 내장메모리는 8GB RAM에 저장 용량 256GB에서 16GB RAM, 512GB까지 다분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다. 울트라 모



갤럭시 S21 + 팬텀 바이올렛. /삼성전자

델에는 후면에 1억800만화소 광각 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카메라 및 1000만화소 듀얼 픽셀 망원 카메라, 갤럭시S21과 S21+는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디스플레이도 더 선명해졌다. 다이내믹 AMOLED 2X 패널로, 울트라 모

은 워드HD+로 해상도를 한층 높였다. 주사율은 120Hz, 콘텐츠에 따라 최저 10Hz까지 자동으로 조정해 배터리 효율도 극대화했다. 울트라 모델은 1500니트로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밝은 화면을 낸다. 사용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블루라이트를 조정해주는 '아이 콤포트 실드' 기능도 있다.

디자인도 혁신했다. 스마트폰 바디와 메탈 프레임, 후면 카메라를 매끄럽게 잇는 '컨투어컷' 디자인으로 스마트폰 디자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컬러는 팬텀 블랙·실버·그레이·화이트·바이올렛·핑크 등 6종으로, 모델별로 따로 적용했다. 지문이 묻는 것도 최소화했다. 편의 기능도 대폭 추가했다. 지문 인식 스캐너가 1.7배 커져 더 쉽게 인증을 할 수 있고, 울트라는 커버 액세서리를 통한 S펜도 지원하게 됐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가보지 않은 길 간다 김정주 '우주'에 베팅

### 넥슨 지주사 NXC

美 스페이스X에 176억 투자  
미래먹거리로 항공우주 주목

가상화폐 빚쟁이 인수 추진 등  
미래 가치 부분 다양한 투자



김정주 NXC 회장.

/NXC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 그걸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안한데요. 뭔가 우리만의 것을 내야 하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 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지난 2015년 출간된 넥슨 기업가서 전인 '플레이'에 실린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신사업을 향한 넥슨 지주사 NXC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빗썸'에 투자를 추진한다고 전해진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스페이스X에 투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김정주 대표가 꿈꾸는 미래 먹거리, 우리만의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NXC는 지난해 8월 스페이스X가 모집한 19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신주에 1600만달러(한화 약 176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펀드에 약 60% 지분을 투자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세운 민간우주개발업체로, 2050년까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완수한다는 우주 개척의 꿈을 가졌다. 실제 지난해 5월에는 민간이 주도한 첫 유인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내 민간 우주여행 시대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을 받는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김정주 대표의 관심이 블록체인에 이어 항공우주까지 뻗어나간 셈이다. 김정주 대표는 1994년 세계 최초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하면서 넥슨을 창립, 온라인 게임 산업을 개척한 대표적 창업가로 꼽힌다. 이후에도 2004년 '메이플 스토리'를 개발한 위젯 인수를 시작으로 회사 몸집을 키워 'M&A의 귀재', '투자의 귀재'로 통하기도 한다. 사무실에 있기 보다는 해외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자유분방

한 시도를 하는 편이다.

그런 만큼 NXC는 교육, 유통·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인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NXC는 지난 2016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을 확보했고, 2018년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도 인수했다. 지난해 3월에는 투자·금융거래 플랫폼업체 '아쿠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아쿠스는 메신저처럼 대화하는 방식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요소를 추가한 투자 서비스를 내년 중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스페이스X 투자 또한 그간 투자 이력을 보면 의외의 행보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2013년에는 민간 최초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미국 기업 '문 익스프레스(Moon Express)'에 투자하기도 하고, 유망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리프트(Lyft)' 등 미래가치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뿐 아니라 푸드 테크 기업, '식품패티' 등 미래식량자원과 관련된 미래 식품 분야, 유통·콘텐츠 분야, 어린이·교육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요 회사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유아용품업체 '스토케'나 레고 거래 사이트 '브릭링크' 등을 인수한 사례도 있다.

다채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춰지만, 우리다음 세대를 겨냥한 미래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이는 늦지 않게 가장 먼저 도전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는 김정주 대표의 전략 과도 궤를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200조 OCIO 잡아라... 기금 유치 大戰

OCIO범위 민간기업·대학 등 확대  
왜곡된 수수료 구조 개선 지적도

200조원 안팎의 외부위탁운용(OCIO) 기관 선정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 가세하면서 OCIO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OCIO 범위가 공적기금을 비롯해 민간 기업·대학 기금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OCIO 시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OCIO는 외부 자산운용자가 연기금·고액자산가와 같은 자산보유자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는 전략적 일임 위탁을 말한다. 기존 전통적 위탁 방식에 비해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이 수탁자인 OCIO 운용사에 위임된다는 특징이 있다.

### ◆자산운용사·증권사 "새 먹거리 전쟁"

OCIO 시장은 정부 부처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조성된 공적기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 공적연기금투자법을 시작으로 다수의 대형 공적기금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기금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중이다. 현재 국내 OCIO 시장 규모는 2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이화여대와 1500억원 규모의 학교 기금 위탁운용 계약을 맺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9년 서울대와 200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위탁운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 중이다.

이밖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자 등의 자금을 맡았다. KB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도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대

체투자 중간운용사에 선정되면서 각각 7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권사도 OCIO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주택도시기금의 위탁운용을 나눠 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해 7개 기업으로부터 종합자산 위탁운용 형태로 5400억원을 신규 유치하는 등 업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OCIO는 기존 안전자산 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운용할 경우 자산 배분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증권사가 OCIO 운용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증권사도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염재인 기자 yj1208@

### <NXC 주요 관계사>

회사명	소개
넥슨	994년 창립,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선행. 2011년 12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
NXMH	NXC의 해외 투자 담당하고 있는 벨기에 소재 투자전문 법인
코빗	국내 최초로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
스토케(STOKKE)	노르웨이 프리미엄 유아용품 전문 기업
아그라스 델릭 (AGRAS DELIC)	애완동물 사료 업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자연산 바다 어종만 사용
비트스탬프	유럽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

# “명확한 비전 있어야 위기 속 성장... CEO부터 달라져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VCM 참석

“2분기 이후 팬데믹 안정화 대비 1위 위한 투자 과감하게 진행을 저부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

“성장이 아닌 생존 자체가 목적인 회사에는 미래가 없다. 명확한 미래 비전이 있다면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올해 첫 VCM(밸류크리에이션미팅)에서 강조한 말이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13일에 열린 '2021 상반기 롯데 VCM'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각 사 대표이사, 롯데지주 및 4개 부문 BU(비즈니스유닛)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번 VCM은 'Rethink-Restart: 재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심도 깊게 이뤄졌고, 특히 지난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



신동빈 롯데 회장

고, 장·단기적으로 균형 잡힌 전략을 도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지표가 부진했다.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위기 때 혁신하는 기업이 위기 후에도 성장 폭이 큰 것처럼, 올 2분기 이후로 팬데믹이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사장단에 “각 사의 본질적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2021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그룹

인 경쟁력,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5년 후, 10년 후 회사의 모습을 임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빗대어 말하며 “다른 회사가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각 회사에 맞는 명확한 비전과 차별적 가치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실행력 제고도 주문했다. “각자의 업에서 1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과감

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DT(디지털전환) 및 R&D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브랜드 강화를 통해 차별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부진한 사업군이 있는 이유는, 전략이 아닌 실행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투자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에 맞는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는 조직문화

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신 회장은 “기업 문화를 쇠신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며 “아직도 일부 회사들에는 권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시대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CEO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 및 그룹 전체 조직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는 기업 생존 및 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전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IMF, 리먼 사태 때도 롯데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우리에게 ‘위기 극복 DNA’가 분명히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성공경험을 과감히 버리고, CEO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사업 혁신을 추진해 달라”며 “저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00조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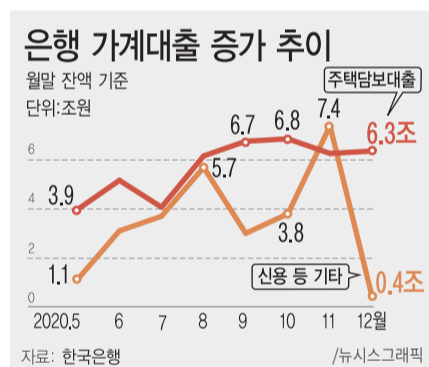
한은, 부동산·주식시장 영향

작년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들쭉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급증세가 꺾인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다. 지난달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2월 비수기에 6조3000억원이 늘어 증가세가 여전했다.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는 집담대출 취급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수요로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며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관리방안 시행과 함께 공모주 청약자금 환불,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후면 카메라 매끄러운 ‘퀵투어 컷’ 디자인

>> 1면 ‘삼성 갤럭시 언팩...’서 계속

와이파이 6E와 듀얼 블루투스 안테나로 연결성도 확대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도 다른 갤럭시 기기를 찾을 수 있다. 초광대역(UWB) 기술도 적용됐다. 기기간 파일 공유 뿐 아니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 추후 디지털 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S21과 함께 갤럭시 버즈 프로도 함께 공개했다. 음질 성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을 탑재해 오디

오 경험을 극대화했다. 사용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자동으로 동작하는 등 똑똑한 기능도 더했다. 완충시 5시간, 케이스를 이용하면 18시간까지 재생 가능하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은 모바일 최우선 시대에 맞춰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누리며, 자신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갤럭시 S21’ 시리즈는 새로운 디자인, 전문가급 카메라,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추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중근당 코로나 치료제, 고위험군 치료 확인

나파벨탄 러시아 임상2상 결과 고위험군 사망 환자 발생 막아

중근당 ‘나파벨탄(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치료 효과를 3배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파벨탄을 투입한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근당은 이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중근당은 14일 코로나19 중증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러시아 임상2상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임상적 지표를 평가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근당은 러시아 임상 2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100여명에게 10일간 위약과 나파벨탄을 투약하여 조기경보점수가 7점 이상인 고위험군 36명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 지표인 ‘p-벨



류’가 0.012로 입증 목표인 0.05 이하에 확실하게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조기경보점수는 코로나로 인한 폐렴 환자의 치명도를 예측하는 지표로, 7점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는 사망확률이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 신뢰도를 나타내는 p-벨류가 0.05% 이하라는 것은 이 결과의 신뢰도가 95%를 넘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파벨탄은 p-벨류 0.012%로 99%에 달하는 신뢰도를 확보한 셈이다.

임상 결과, 고위험군 환자에서 나파벨탄을 투약한 동안 61.1%의 증상 개선율을 나타내, 표준치료의 11.1%에 비해 확실하게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전체 임상기간인 28일간 표준치료군의 증상

개선율이 61.1%인데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은 94.4%(p-벨류 0.016)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증상개선율을 나타냈다. 회복에 도달하는 기간에서도 표준치료군의 14일에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은 10일로 단축시키는 결과(p-벨류 0.008)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전체 100명의 임상중에서 표준치료군에서는 질병의 진전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4건이 발생하는데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에서는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나파벨탄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증상의 악화로 인한 사망 환자 발생을 막아주는 약제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근당은 러시아 임상 2상 결과 자료를 받는대로 식약처에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함께 신청할 임상 3상에서는 국내외 대규모 환자군을 통해 나파벨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도 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부분 무죄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판단에 불복, 재상고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

단과 관련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추징금 35억원도 부과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커피 두 잔 값에 자문, 자산관리... “주린이 반할 만하네”

(주식+어린이 ‘주식 초보자’)

## 금융 어디까지 구독해봤니

### 증권사 자산관리 서비스

‘한달 1만원’에 PB가 컨설팅까지 비용부담 적어 MZ세대에게 호응 잠재고객 확보 차원 서비스 붓물 일정기간 후 탈퇴 가능성은 우려

금융 구독 서비스는 증권사의 자산 관리(WM)·투자자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대상은 기존 자산관리 시장에서 소외됐던 MZ세대. MZ세대는 1981~1995년생 ‘밀레니얼 세대’와 1996~2004년생 ‘Z세대’의 합성어로 디지털 IT기기를 통한 비대면 문화에 익숙하다.

MZ세대는 주로 재테크 투자대상으로 주식을 꼽는다. 은행 적금의 경우 2%대 금리를 찾기 어렵고, 부동산 투자는 이들에게 너무 큰 자금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 약 1700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당장의 투자금이 크지 않더라도 추후에는 우량 잠재고객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산관리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는 이들이 선호하는 월정액 방식으로 자산관리·투자자문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기존의 수수료방식은 성과, 운용, 총 관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MZ세대 입장에서 성과나 총 관리 금액에 따라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월 정액방식이 비용부담이 적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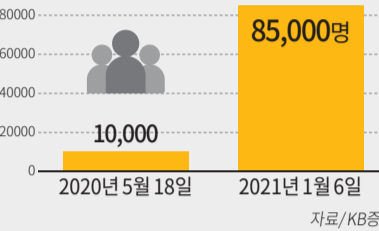
### ◆찰스 슈왑, 월 3만3000원 자산관리·투자자문

자산관리·투자자문 구독서비스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했다. 지난 2019년 4월 찰스 슈왑(Charles Schwab)은 월정액제 방식의 자산관리·투자자문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서비스는 가입비

## KB증권의 프라이م 클럽 혜택



### 프라이م 클럽 가입자 수



자료/KB증권

300달러(약 33만원)를 지불하고 매달 30달러(약 3만3000원)를 내는 구조다.

자산관리·투자자문 서비스는 찰스 슈왑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통해 제공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투자전문가의 합성어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의 위험 성향과 목표에 따라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자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한다.

찰스 슈왑이 이 같은 투자자문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향후수수료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찰스 슈왑은 산하에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연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증권사간의 경쟁 심화는 온라인과 모바일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하게 했다. 찰스 슈왑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수익은 39.6%가 거래수수료였다. 다만 이 같은 거래수수료는 2010년 18.1%, 2019년 5.1% 수준이다.

### ◆국내도 한 달에 구독자 1만명 증가세

국내에서도 속속 자산관리·투자자문 구독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비대면 및 온라인 고객들에게 전문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머 센터를 열고 그 해 4월 프라이م 클럽(Prime Club)서비스를 출시했다. 프라이م 클럽 서비스는 월 1만원으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유선상으로 프라이مPB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프라이م 클럽의 가입자수는 출시한지 17일만에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 6일 기준 8만5000명을 넘어섰다. KB증권은 프라이م 클럽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AI어드바이저를 도입해 조금 더 디테일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프라이م 투자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 매체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지수연계증권(ELS)·펀드 등 금융상품을 주도적으로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증권사도 젊은세대 고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만큼 국내 증권사 또한 현재 고객 구성 분석을 통해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고객층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결국 고객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 최대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다만, 구독 비즈니스 모델 도입 시 고객이 일정기간 후 탈퇴할 가능성이 있어 수익 불안정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결정의 어려움, 기존 고객과의 카니발라이즈(비슷한 신제품을 내놓으면 기존 제품 매출이 줄어드는 것) 등의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 두산인프라, 사실상 승소 회수소송 원점 ‘매각 탄력’

대법, 승소 취지 파기환송 3兆 자구안 달성 ‘청신호’ 동반매도청구권은 리스크



두산인프라코어 글로벌 R&D센터.

두산인프라코어가 자회사인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매각 관련 기업공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대 1조원의 부담을 질 수 있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인프라코어 매각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법원이 두산 측이 실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송의 취지는 인정하면서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DICC의 외부 투자자가 곧바로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경우 인프라코어 매각도 꼬이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DICC의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FI)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년 2개월 만이다.

두산이 승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다. 두산 측이

실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부 투자자는 여전히 동반매도청구권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외부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DICC가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고, 결국 인프라코어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두산 측이 외부투자자 지분 20%를 직접 취득해야 한다.

두산 측은 일단 인프라코어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은 이달 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인프라코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코로나 1년 버틴 소상공인 “방역전쟁 총알받이 더는 무리”

## 방역당국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

코로나 규제 자영업자 희생 강요  
확진자 감소 완만... 연장 가능성  
“대출원리금·임대료도 멈춰야”

방역당국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감소 추이가 완만한 상태여서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현재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자영업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도깨비시장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울컥하고 있다. /중기부

총알받이)와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체육시설 유동적 운영)란 제목의 게시물이 참여인원 20만이 훌쩍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청원인 A씨는 ‘자영업자 총알받이’ 게시글에서 “코로나 규제방향을 보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 집합금지할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되면 그 기간 대출원리금도, 임대료도, 공과금도, 각종 세금도 모두 정지되어야 한다”며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하나,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하나”라며 호소했다. 지난달 7일 올라와 지난 6일 기간이 끝난 이 게시글엔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체육시설 유동적 운영’ 글은 보름 정도 지난 이날 현재 벌써 22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공감을 표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체육시설은 ▲실내나 실외나 ▲사위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100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과 삶의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3583만원에서 2655만원으로 25.9% 감소했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727만원에서 468만원으로 35.6%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먹고 살기가 더욱 팍팍해지다보니 ‘워라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응답 소상공인의 71.3%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만성피로·피곤함, 우울감이 늘었고, 일의 질도 나빠졌다.

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수입이 ‘불만족’하고, 노동 시간도 ‘너무 많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겨우 5.22점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 끼친 영향까지 세심히 살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고통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양대포털 ESG 경영 강화 네이버 카본네거티브 추진 카카오 지배구조현장 개정

네이버 아동·청소년 보호 센터 운영  
카카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신설

네이버와 카카오도 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ESG 경영이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한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건전한 지배구조에 가치를 두는 경영 행위를 일컫는다.

네이버는 지난해 ESG 위원회를 신설한데 이어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 산하에 ESG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ESG 위원회는 ESG 기반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통해 사업 방향과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환경에 대한 이슈를 관리한다.

네이버는 ESG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목표도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친환경 이커머스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 파트너 성장지원 확대, 주주 가치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후변화, 정보보호·보안,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오는 204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량보다 더 많은 탄소량을 감축하는 ‘카본 네거티브’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친환경 관련 사업과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2013년 6월에 오픈한 데이터센터 ‘각’에도 친환경적 요소가 대거 들어가 있다. 서버의 열을 내리기 위해 스노우메iting,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외부 공기를 통한 자연 냉각 시스템 등이 도입됐다.

음란·불법 게시물 차단과 아동·청소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전경. /네이버

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센터 운영,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특히 네이버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센터’를 오픈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각 서비스 운영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김범수 의장, 최세정 사외이사, 박재삼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현장’도 제정해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현장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5개 영역에 대한 운영 방향과 함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은 책임 경영을 수행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ESG 위원회 신설 전에도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을 해왔다. 지난 4일에는 구성원과 사업 파트너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 등을 담은 ‘인권경영선언문’을 대외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조항을 운영정책에 추가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센터도 친환경으로 지을 예정이며, ESG 경영 현황과 성과는 향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ESG 경영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개인도 투자를 할때 ESG를 준수하는 기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시장 초기단계... 퇴직연금 등 정책확대 기대

>> 1만 '200조 OCIO...'서 계속

그는 또 “OCIO 시장은 사실 대형 기금 외에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때문에 해당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노후를 쌓는 등의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OCIO, 성장 잠재력에도 문제점 여전  
OCIO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앞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국내 OCIO 시장 확대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개선할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OCIO 제도가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OCIO 본래 기능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시장의 경쟁 과열로 원가 이하의 왜곡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CIO 운용사의 위탁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운용규모에 비례하는 운용보수와 운용성과에 비례하는 성과보수로 나

뉜다. 우리나라는 다수 OCIO 활용 기관이 복수 주간운용사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OCIO 운용사 간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성과보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원은 ‘국내 OCIO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OCIO 운용사의 역할은 상품 선정 같은 자금 집행에 국한돼 있고, 엄격한 전담운용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고비용 구조”라며 “고비용 구조임에도 과도한 시장 진입 경쟁과 원가 이하의 비합리적인 수수료가 일반화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OCIO 제도 개선을 위해선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운용 목표와 허용위험한도 설정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정의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 ▲수수료 체계 합리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재민 기자 yji1208@

## 금융위, 금감원 전자공시 검색기능 강화

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분기보고서 공시항목 40% ↓

앞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검색기능이 강화된다.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는 기존 공시항목의 40%를 줄여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도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또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급변하는 환경 속 '리질리언스' 역량 키워 혁신 금융 도약

(회복 탄력성)

## 포스트 코로나 금융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비은행 부문 확대...성장 동력강화 전사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혁신 금융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 선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내세웠다.

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위기를 겪었지만, 올해도 역시 지난해 못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금융그룹은 빅블러(Big Blur)·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시대 속에서 무한경쟁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극복 '리질리언스' 강조

손 회장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이며, 위기의 끝에는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생존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연중 비상경영 체제



지난 8일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타운홀 미팅'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좌)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라는 마음이짐으로 각오와 열정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리질리언스(Resilience)'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질리언스란 물리학이나 생태학에서 사용했던 '회복 탄력성'이란 뜻으로, 경제적 타격 이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는 "외부 충격으로 수축한 스프링이 강한 활력을 통해 원래보다 더 강하게 튀어 오르듯 급변하는 외부 흐름을 민첩하게 파악해 리스크를 걸러내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혁신적인 기업만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비대면)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권 내에서도 언택트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일상으로 퍼져 이제는 변화가 필수가 됐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그룹 경영목표와 6대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그룹이 획기적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 ◆6대 경영전략 추진

우리금융이 내세운 6대 경영전략은 ▲그룹 성장기반 확대 ▲디지털 넘버원 도약 ▲경영효율성 제고 ▲브랜드 및 E

SG경영 강화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글로벌 사업 선도 등이다.

손 회장은 경영전략 중 첫번째로 그룹 내 성장기반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행권내 자금이 비은행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는데, 아직까지 증권·보험 비은행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지 못한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약하다는 평이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환경이 위축돼 단기간 내에 규모있는 M&A(인수합병)는 쉽지 않겠지만 그룹 내 비어있는 비은행 부문 확대를 모색해 그룹성장을 위한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업 내에서 언택트가 일상화한 만큼 디지털 전환도 이어간다.

손 회장은 "올해는 수많은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의 벽을 허물고 우리와 혁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은 금융회사제1의 고객 접점이며, 전사적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혁신과 디지털 넘버원 금융그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8일 그룹 '디지털 혁신 타운홀 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빅테크 수준의 파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디지털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5월 우리금융은 그룹 디지털 비전으로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이니셔티브(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를 내세우면서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손 회장은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다.

손 회장은 "디지털 넘버원이 되려면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임원들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내규나 법률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빅테크 수준으로 파격적인 해결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위한 ESG경영 강화도 이어간다.

손 회장은 "ESG경영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한국형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금융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선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은행 대출 연체율 '사상 최저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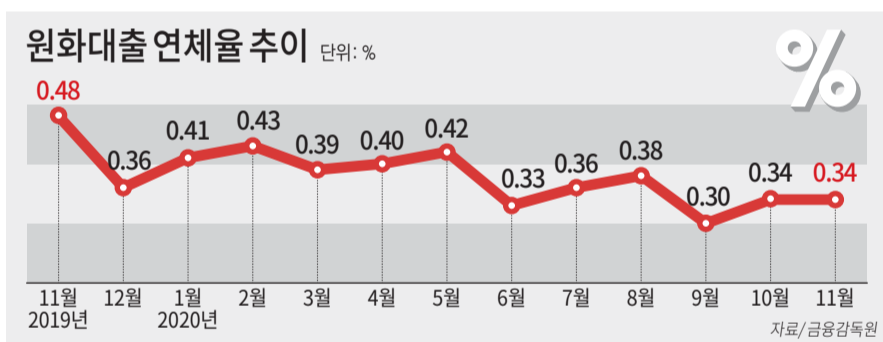
작년 11월 말 국내銀 원화대출 연체율 신규연체 발생액 1조... 전월대비 감소 연체채권 정리규모, 전월 대비 증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4%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 동월 말 대비로는 0.14%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차별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



과 같은 0.43%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8%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오른 0.46%다. 연체율은 중소기업이 0.01%포인트 상승한 0.62%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과 같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계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같은 0.16%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42%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연말정산·소득 공제 노하우 알려드려요"

카카오뱅크, 맞춤형 금융 가이드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연말정산을 돕는 가이드와 편의 기능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금융 가이드는 고객층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했다.

기초 연말정산 가이드는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원징징수와 과세표준 등 관련 용어 풀이와 도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주택공제 등 3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각 항목에 맞게 쟁길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소득 공제 노하우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뱅크미니(mini)를 사용하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 합산 공제 대상이다. 역시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콘텐츠들은 카카오뱅크 앱과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월에는 '카카오뱅크 상담봇'도 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 매년 고객들이 많이 문의하는 연말정산 제출 서류와 발급 방법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말정산 키워드만을 입력해도 소득공제용 이용내역서와 상환증명서 등 관련 서류 발급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동영상 안내와 발급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했다. /안상미 기자

## 한은 디지털 화폐박물관 개관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화폐박물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했다.

일반 국민들이 화폐박물관의 전시관과 전시물을 온라인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했으며, 화폐박물관 8개 전시관을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고화질 3D영상으로 재현했다. 화폐도안과 상평통보를 주제로는 3~5분 내외의 동영상 2편을 제작했다. /안상미 기자

## "고객중심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 목표"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결의 다져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 화상 개최

NH농협은행은 14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2021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고객중심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권준학 은행장을 비롯한 전국의 임직원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넥스트노멀(Next Normal)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고객과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 경쟁우위 지속 확보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수익 제고형 성장구조 조성 ▲환경·사회·고객 가치 창출 등 각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권 행장은 "올 한해는 농협은행이 신

/안상미 기자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14일 전국의 임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라며 "임직원 모두가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KB국민銀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록 이벤트'

총 1000명에 5000 포인트리

KB국민은행은 2월 말까지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규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보내고자 할 때 지정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이벤트 기간 중 신규 등록한 고객이다. 이 중 미화(USD) 500불 이상 해외 송금한 고객을 추첨해 총 1000명에게 5000 포인트리를 증정한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규 등록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 할인과 환율우대 30%도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저렴한 해외송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이번 신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환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해외서 날개피는 보잉737 맥스 국내 운항재개 '먼 나라 이야기'

추락사고 이후 계약 취소·수정  
사고 이전 도입 이스타항공 뿐  
AOC재취득·법정관리 걸림돌

외국 항공사를 시작으로 다시 운항에 나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가 국내에서는 당분간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잉의 항공기 737맥스는 지난달 브라질 최대 항공사인 골이 브라질 상파울루와 포르투 알레그레 노선을 비행하며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연이은 추락사고로 인해 2019년 3월 약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중단됐으나, 21개월여 만에 다시 비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각각 2월, 3월부터 737맥스를 활용한 항공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737맥스로 운영되던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항공기는 각각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잇따라 추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모사망자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결함 보완 작업을 거친 737맥스에 대해 비행 재개를 허용하며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737맥스의 운항 재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사실상 국내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

서 737맥스가 재운항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추락사고 이전 해당 항공기를 들여왔던 곳은 이스타항공 뿐인데, 현재 운항은 차치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을 잠정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다시 정상 운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AOC(항공운항증명)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문제가 됐던 비행 통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핵심 비행조종 시스템에 새로운 안전장치도 추가해야 한다.

이스타항공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직원은 550여 명, 항공기는 6대 남아있다.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이달 말이나 혹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 따르면 737맥스가 연이은 추락사고로 운항이 중단되기 이전 도입계약을 맺었던 다른 국적 항공사도 당분간 해당 기종을 들여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려 당시 도입 계약을 맺었던 항공사들은 계약 취소 등 일부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스타만 2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운항 재개를 결정해도 항공기 보유 업체가 미 관련 당국에서 말한 안전 개선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며 "실제 운항까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일단 항공기에 대한 수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스타항공이) AOC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국제선의 경우 주변국에서 하늘을 열어야 최종적으로 운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포스코, '합적배선' 시스템 개발·운영

고객사 소량화물 함께 선적

포스코가 수출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소량 화물을 자사 물량과 함께 선적할 수 있는 '합적배선' 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합적배선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고객사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합적 가능한 선박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합적하기 위해 대형 화주나 선사에게 수시로 선적 일정을 확인하고 부탁해야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합적배선 시스템'을 통해 42개 중소기업 고객들이 5만 6000톤을 합적했고, 총 11억원 가량의 물류비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철강재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는 오필석 한금 대표는 "포스코의 '합적배선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포스코와 동일한 수준의 운송 품질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한달에 1~2회 주기적으로 선



포항제철소 제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

적할 수 있고 선적량이 적어도 합적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합적배선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애도 포스코와 선사 등 물류 밸류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포스코형 '스마트 상생제도'의 실천사례로 꼽힌다. 선사는 추가 물량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수 있고,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타 부두로 이동하지 않아도 돼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는 화물의 선적수량이 계약수량보다 부족해 발생하는 부적 운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포스코는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 사용 방법과 물류 솔루션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최종합의 도달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손을 맞잡으며 '뉴삼성'에 한 발 다가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4일 아산1캠퍼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단체협약안 109개 항목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범동 인사팀장과 김정란-이창완 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26일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한 후 7개월여간 9번 대표 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소통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과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후 삼성전자 등 계열사는 노사간 상견례를 진행하는 등 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SK이노, LG 상대 美 특허무효소송 기각

美PTAB, 8건 조사개시 거절  
내달 결론 '배터리 소송' 관심

미국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미국무역위원회(ITC)가 진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하는 특

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및 양극재 특허 유효성 관련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비비도 가려보지 못하게 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양극재 특허 2건과 분리막 특허 3건에 대해 각각 특허 무효심판을 4건씩 총 8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 무효심판 8건 가운데 6건을, 이달 12일 나머지 2건에 대

해 조사개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심판 절차는 무효심판 청구와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개시 결정을 비롯해 양측의 답변서 제출, 구술심리, 특허심판원 심판부(3인 합의체)의 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됐으며, 본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월 31일 이 같은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양성운·김수지 기자 ysw@

# LG전자, 휘센 에어컨 '로하스' 인증

LG전자 에어컨이 국내 최초로 '착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창원에서 생산하는 휘센 가정용·상업용 에어컨으로 로하스(LOHAS)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초다.

로하스는 한국표준협회가 2006년

부터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사회공헌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인 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하고 있다.

LG전자는 ▲고효율 제품 개발 ▲제품의 환경 유해성 개선 ▲생산과정의 폐기물 및 제품 사용 후 폐제품 관



대한민국로하스인증

로하스 인증 마크

리 ▲온실가스 감축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재용 기자

# 포스코에너지, 광양 LNG터미널 설비 확장

20만kl 용량 6탱크 증설

포스코에너지가 LNG 수요와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 LNG터미널 설비 확장에 나선다.

포스코에너지는 14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LNG터미널에서 6탱크 증설 공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은주 포스코에너지터미널사업실장, 김철관 포스코건설 화공사업실장, 권경환 포스코ICT SmartEIC사업실장, 김상익 포스코A&C 플랜트CM사

업실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화해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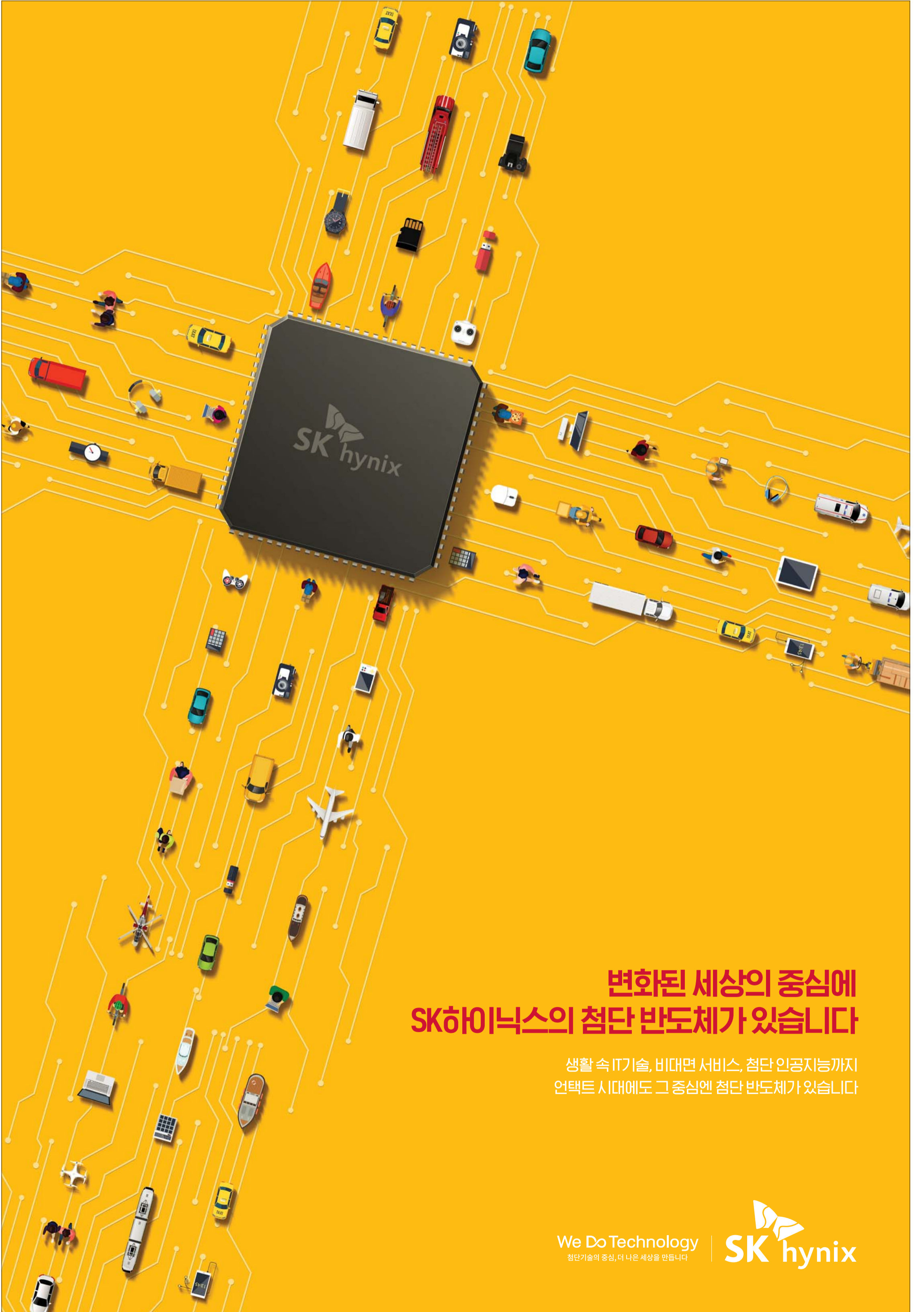
이번에 증설하는 6탱크는 20만kl 용량으로 약 1437억원을 투자해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6탱크가 준공되면 광양 LNG터미널의 저장 용량은 현재 운영 중인 1~5탱크 73만kl에서 93만kl로 확대된다.

특히 6탱크는 5탱크 건설 때와 같이 포스코그룹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협업을 통해 건설될 예정이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LNG 탱크 내조 소재용 고강도 강과 고강도 강재(STP550)를 적용한다.

/김수지 기자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언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글로벌·UPA, 호치민에 복합물류센터... 越 물류사업 박차

(울산항만공사)

항만 배후단지 3만㎡ 부지에 설립 호치민 도심에 풀필먼트센터 구축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운송 추진

현대글로벌이 울산항만공사와 손잡고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에서 복합물류센터 운영(W&D)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글로벌은 울산항만공사(UPA)와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 호치민 항만 배후단지 3만㎡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전략적 협업을 나서기로 했다.

현대글로벌은 지난 2019년 베트남 첫 진출 이후 지난해에는 호치민 지사를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오고



정진우 현대글로벌 스마트이노베이션본부장(오른쪽)과 정창규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UPA 본사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

양사는 MOU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합물류센터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복합물류센터 완공 후 양사는 이곳을 통해 베트남 현지 콜

드체인(냉장·냉동 물류)·자동차 부품·일반 화물 물류를 수행한다.

현대글로벌은 특히 콜드체인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상 식품, 의약품 등을

운송할 때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글로벌은 지난해부터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산 농식품을 중국 주요 곳곳에 운송하고 있다. 베트남에도 노하우를 적용해 해상운송, 통관, 창고 보관, 내륙 운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윈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호치민 복합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의 물류기지로 활용되는 동시에 비자동차 물류도 수행한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섬유·식품·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벌은 복합물류센터 운영이 정상궤도에 돌입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호치민 도심 지역에 소규모 도심형

물류창고인 풀필먼트(물류일관대행) 센터를 구축해 한국산 농수산물·K팝 상품·고급 소비재 등을 운송하는 이커머스 물류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넘나드는 국경운송도 추진한다. 호치민을 경유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화물을 유치해 보관, 운송, 통관까지 수행하는 일괄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글로벌은 베트남 공약을 위해 2019년 하노이에 동남아 첫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호치민 지사를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현대글로벌 관계자는 “호치민 복합물류센터가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 전 지역에서 통하는 사업모델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하이닉스, 업계 첫 10억弗 그린본드 발행

환경친화적 투자... 특수목적 채권 신규 최첨단 폐수 처리장 건설 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계획

SK하이닉스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한다.

SK하이닉스는 14일 10억달러 규모 그린본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본드는 환경친화적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목적 채권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SK하이닉스는 ESG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린본드 발행을 결정했다. 이미 전세계 230여개 기관 투자자에서

54억달러 주문이 몰리면서 당초 5억달러로 계획했던 규모를 10억달러로 대폭 늘렸다.

SK하이닉스는 그린본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수질 관리, 에너지 효율화, 오염 방지, 생태환경 복원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물 관리를 위해 신규 최첨단 폐수 처리장 건설과 용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IT 산업 전반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저전력 SSD 개발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장혁준 재무담당은 “이번 글로벌 그린본드의 성공적인 발행은

RE100 가입을 포함한 회사의 적극적인 친환경 행보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정해준 결과라고 본다”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메모리반도체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EV(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SV(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ESG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한 파이낸셜스토리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3% 이상 저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HDD를 SSD로 대체하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김재용 기자 juk@

## LG CNS

블로그 누적 방문자 1000만명

방문자 65% ‘키워드 검색’

LG CNS는 자사의 IT 전문 블로그 ‘크리에이티브&스마트’가 개설 8년 만에 누적 방문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LG CNS 블로그는 2012년 문을 연 이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2015년 100만명, 2017년 400만명, 2019년 800만명 그리고 2020년 12월 1000만 명의 누적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LG CNS 블로그는 독자들이 IT 키워드를 검색해 스스로 찾아온다. 지난해 동안 방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방문자의 65%가 검색사이트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등을 검색해서 들어온 ‘키워드 검색’ 방문자였다.

LG CNS는 블로그를 통해 매주 5회 IT 콘텐츠를 발행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적용 사례와 IT 신기술 트렌드 등 2400여 건이 넘는 콘텐츠가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다이슨 데모스토어.

/다이슨코리아

## 여의도에 다이슨 데모 스토어 오픈

전문가 상주, 제품 체험 가능

다이슨이 국내 소비자들과 접점을 대폭 확대한다.

다이슨코리아는 15일 여의도 IFC몰에 국내 첫 데모 스토어를 오픈했다.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도 개최했다.

다이슨 데모스토어는 엔지니어에 교육 받은 전문가 ‘엑스퍼트’가 직접 최신 기술과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공간이다. 무선청소기와 헤어 케어 제품,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등 3개 분야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도 있다.

데모스토어 고유 서비스도 있다. 무선 청소기는 주거 환경과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주고, 청소기 봉 부분도 취향에 따라 판매한다. 헤어케어 제품도 레더 케이스에 이니셜을 무료로 새겨주는 ‘인그레이빙(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어랩 스타일은 블랙 퍼플 에디션은 현장 판매한다.

다이슨은 처음으로 전 제품군을 판매하는 데모스토어를 열었다. 국내 시장이 규모와 기술면에서 대폭 성장하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용 기자

## 종업원 없이 체크인... KT ‘AI 호텔’ 선보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에 적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호텔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재택근무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숙객이 종업원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언택트’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식이다.

KT는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에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반의 업그레йд 된 디지털 호텔 혁신 서비스인 KT AI 호텔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KT AI 호텔은 투숙객들이 기가지니의 인공지능 음성명령을 통해 객실 조명이나 가전을 제어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호텔로봇을 통한 컨시어지 서비스들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편의 서비스다.

KT AI 호텔에 포함된 ‘AI 호텔 로봇’은 KT가 2019년 12월 선보인 AI 로봇으로, 공간맵핑과 자율주행 등의 첨단 ICT 기술을 적용했다. 호텔 투숙객이 수건, 생수 등 편의용품을 요청하면 로봇이 찾아와 배달해준다. 직원의 단순노동 시간을 줄여 서비스 품질과 호텔 운영업무 효율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 AI 호텔은 ‘대구 메리어트 호텔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에서 직원들이 KT AI 호텔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KT

&레지던스’의 190개 호텔형 전 객실에 도입되며, 메리어트레지던스에는 최초로 레지던스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 ‘AI 스테이(Stay)’를 선보인다.

‘AI 스테이’는 객실 TV의 전용화면을 통해 공지사항, 시설정보, 용품요청 등의 컨시어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날씨, 대화, 키즈랜드, 홈트레이닝, 게임 등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기가지니’와 ‘올레TV’의 서비스들을 숙박시설인 레지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 AI 호텔은 글로벌 호텔 체인인 아코르, 하얏트에 서비스 적용된 데 이어 이번엔 메리어트 계열에서도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35개 호텔, 7200개 객실로 AI 호텔 솔루션을 확대하게 됐다.

/김나인 기자

## 넥슨 게임서 ‘카톡’ 친구 초대 가능해진다

카카오게임즈-넥슨 파트너십 체결

카카오게임즈는 넥슨과 14일 넥슨 인기 게임에 카카오게임즈의 ‘소셜마케팅모델’을 적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넥슨 게임 내 카카오 계정을 연동하면 카카오톡 친구 상태를 확인해 초대 메시지를 보내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이용자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이번 제휴로 카카오게임즈의 ‘카카오플랫폼’ 소셜 기능에 기반한

추천 솔루션 ‘소셜마케팅모델’을 넥슨의 인기 라이브 게임에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톡 채널 메시지’ 게임 광고 등 최적화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 내 카카오 계정을 연동시켜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친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랭킹 경쟁을 펼치거나 오프라인 상태인 친구에게 초대 메시지를 발송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디지털혁신 통해 최적 솔루션... 국민의 평생 투자파트너로

## 증권사 경영전략

### KB증권

박정림·김성현 대표이사 연임성공  
사모펀드 사태 고객 신뢰 회복 위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기업경영 필수 ESG 전담팀 신설도

KB증권이 중장기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최적의 투자솔루션 제공'을 모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약된 업무



환경이 지속돼 디지털 경쟁이 더 거세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대표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김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 부담에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KB증권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이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공동 대표는 최근 신년사에서 "지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과 더욱 탄탄해진 조직역량을 확보했다"며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생명과도 같은 고객의 신뢰를 위한 리스크, 내부통제 체계의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 초(超) 경쟁환경 대응해야"

KB증권은 2021년 핵심 목표로 ▲비즈(Biz) 핵심경쟁력 레벨업 ▲디지털 기반의 Biz역량 및 플랫폼 기반 Biz모델 혁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최적의 투자솔루션 제공"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두 대표는 "디지털 초(超)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Biz역량 강화와 플랫폼 기반 Biz 모델 혁신을 가속화 해야 한다"며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 빅테크(big tech·대형 정보기술기업) 기업의 증권업 진출 확대,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본격화로 금융기관 간 치열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 산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금융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

방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빗장이 풀려 증권사 간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정림·김성현 대표는 "데이터 중심 고객분석을 통해 고객여정(CJM)별 스마트 오퍼링(Smart offering)과 마블(M-able) 중심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달라"며 "디지털 에코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확장 등을 통해 고객 유입 확대와 비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가치(밸류·value) 창출에 디지털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ESG위원회 신설

KB증권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에 강화했다. 지속 가능 발전과 ES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는 ESG에

대한 권고를 넘어 관련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추세다.

두 대표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된 ESG 경영에 대해서는 그룹의 ESG 전략과 연계해 전사 차원의 ESG 경영 체계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SG 로드맵(Road-Map)의 수립, 환경 관련 탄소배출량 절감, ESG 관련 투자 및 상품 확대 등을 통해 ESG 경영을 내재화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지난해 말 이사회 산하에 ESG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ESG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제공 강화를 위해 리서치센터내 'ESG 솔루션팀'을 신설하고, ESG 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선제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리스크심사본부'도 확대 개편했다.

이들은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고객 중심의 사고와 엄격한 윤리의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신설된 리스크심사본부, 내부통제혁신부 그리고 기존 통제 관련 부서들은 전사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체계에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15조 IPO 몰려온다... 주관사 유치경쟁 후끈

올해 대어급 IPO 줄줄이 예고  
이달 청약 13곳 중 7곳 상장 목표  
한투·미래에셋·NH 경쟁 치열

올해도 기업공개(IPO) 시장이 뜨거울 전망이다. 수조 원대 기업 가치를 지닌 '대어(大魚)'들의 상장이 예고된 가운데 시장에서 전망하는 IPO 공모금액은 최대 15조원에 달한다.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 만큼 '빅딜'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역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투자사업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자은행(IB)과 주식발행시장(ECM)을 주요 수익원으로 인식한 증권사 간 자리다툼이 예상된다.

#### ◆'IPO 열풍' 올해도 계속

올해 첫 공모주로 주목받았던 엔비티가 신기록을 써냈다. 12~13일 진행된 일반 공모 청약에서 4397.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루다의 기록(3039.56대 1)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앞서 엔비티는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1만3200~1만7600원)의 상단을 초과한 1만900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엔비티가 흥행에 성공한 만큼 후발주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엔비티를 시작으로 숨가쁜 일정이 이어진다. 이달 안에 청약이 예정된 기업만 13개사다. 선진뷰티사이언스, 씨이랩, 씨엔투스성진, 모비릭스, 핑거, 솔루션,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와이더플래닛, 레인보우로보틱스, 아이퀘스트, 유일애

(지난해 증권사별 IPO 딜 수수료 순위)

순위	증권사명	수수료(억원)	점유율(%)	이자율(BP)
1	한국투자증권	248	19.40	222.40
2	미래에셋대우	244	19.10	276.99
3	NH투자증권	199	9.35	128.26
4	삼성증권	116	9.07	217.00
5	KB증권	96	7.35	236.77

네테크, 뷰노 등이다. 이 가운데 약 7개사 정도가 이달 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스페(SPAC) 상장기업 4곳까지 포함하면 최대 두자리수의 상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개사가 상장했던 2011년 1월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11년 이후 8년 동안 1월은 회계 결산의 영향으로 1~4개 기업만 증시에 입성하며 '상장 비수기'로 통했다.

공모주를 향한 관심도 아직 뜨겁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공모금액 측면에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도달할 것"이라며 "IPO 예정기업 수는 약 120~140여개로 공모금액은 10조5000억~12조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증권은 이보다 높은 1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불붙은 3강' 경쟁... 끝까지 간다

주관 계약을 따내기 위한 증권사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3강으로 평가되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의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전과 달리 빅딜뿐 아니라 중소형 딜 수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해 IPO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차지한 주인공은 한국투자증권이다. 18건의 주관계약을 따내며 248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시장 점유율이 19.4%에 달한다. 미래에셋대우(20건·244억원)가 간발의 차로 2위를 기록했고 NH투자증권(15건·119억원), 삼성증권(10건·116억원), KB증권(9건·9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은 미래에셋대우다. 올해 가장 큰 대어로 평가되는 크래프톤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야놀자, 바디프랜드, 호반건설 등 대형 딜을 연달아 따냈다. 벌써부터 2018년 이후 3년 만에 공모 실적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그래도 결과는 알 수 없다. 대형 후보군은 아직 즐비하다. SK그룹 소속 ADT캡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이 상장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그룹 역시 주관사 선정을 마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를 제외하더라도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이 남아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 서울 전세난민, 수도권 주목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건설사, 접근성·비규제지역 내세워  
경기도 양평·수원 등 분양 잇따라

서울지역 집값 급등과 전세난으로 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었다.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세값도 오르면서 '전세 난민'으로 전락한 세입자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

일부에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면 수도권에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평균이 5억원을 돌파해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상황이다.

#### ◆접근성·주거환경 좋은 수도권 선호

내집마련 실수요자가 찾는 수도권 아파트의 최우선 조건은 서울과의 접근성이다. 출퇴근길이 편리하고 언제라도 쉽게 서울로 오갈 수 있는 전철망과 다양한 도로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8분이다.

여기에 초중고교와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 아파트 단지의 시설 쾌적성 여부도 살펴야 한다.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될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우수한 서울 접근성,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과 관련한 규제가 적다는 점을 무기로 내세



양평역 한라비발디 조감도.

우고 있다.

#### ◆분양 앞둔 수도권 유망 단지는

(주)한라(옛 한라건설)는 2월 중 경기도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분양한다. 전체 단지가 1602세대로 양평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최고의 매력은 교통환경이다. 경의중앙선·KTX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한화건설은 1월 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서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64~84㎡ 아파트, 1063세대 규모다. 수원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AI 반도체... AI 합성... 데이터... AI의 미래 제시한 韓기업들

데이터·AI 기업, ICT 연구기관 AI 학습 데이터 가공, 라벨링 등 관련 서비스 시연... 러브콜 쇄도 자율주행 데이터수집 기술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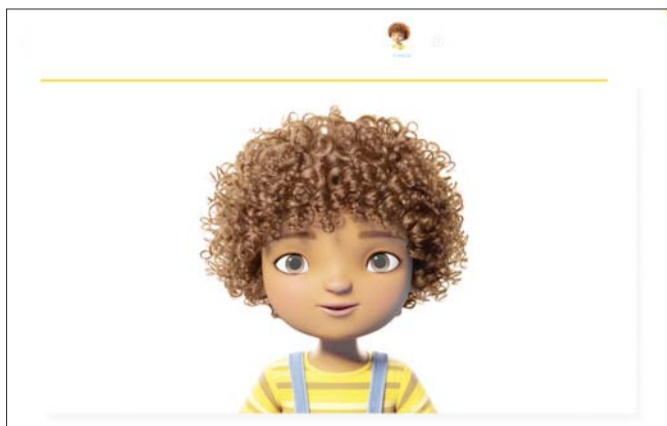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업, ICT (정보통신기술) 연구기관 등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1'에서 AI 배우, AI 경량화, AI 반도체 기술은 물론 '데이터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가공 솔루션, 데이터 익명화 기술 등을 전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네오사피엔스·에이모·인피닉·노타·딥핑소스 등 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CES를 통해 AI 혁신 기술을 시연했으며, 제휴 문의나 상담 요청, 제품 이용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호응을 얻었다.

AI 음성 합성 전문업체인 네오사피엔스는 CES에서 AI 음성기술과 이와 연동된 AI 아바타 기술을 선보였다.

네오사피엔스는 유효 가입자수 16만 명을 돌파한, 60여종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AI 성우 서비스 '타임캐스트'의 진화된 형태인, AI 배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콘텐츠의 비주얼이 될 얼굴을 선택하고 성우 서비스를 결합한 아바타 서비스이다.

네오사피엔스는 또 이번에 지난해 1000% 이상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오사피엔스가 CES에서 선보인 AI 음성기술과 아바타 기술을 접목한 AI 배우 서비스. /네오사피엔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영어권 나라를 첫 번째 타깃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AI 성우 5인 이외에도 AI 성우를 늘려갈 계획이다.

네오사피엔스 관계자는 14일 "기존에 오디오북 제작, 기업 아바타·컨시어지에 넣는 목소리를 구매하는 기업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CES에서는 영화·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대형 글로벌 방송사 등에서 많은 문의를 받았다"며 "AI 배우는 누구나 손쉽게 제스처를 지정하고 감정을 조절해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 유튜버 등이 론칭 시기와 사용 문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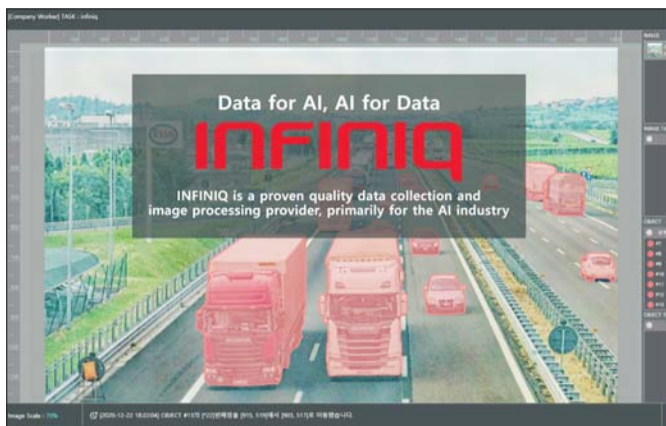
AI 학습데이터 가공 플랫폼 기업인 에이모는 이미지텍스트 인식(STR), 드론 객체 감지, 3D 인체 동작 인식 뿐 아니라 의료 분야 DICOM 파일 라벨링

모델 등 고도화된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공개했다. 또 웹 기반 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협업 플랫폼인 '에이모 엔터프라이즈'도 선보였다. 에이모는 현재까지 약 10여개 기업과 상담을 진행했다.

에이모 관계자는 "CES 2021에서 라이다(LiDAR)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최근 자율주행뿐 아니라 가전과 산업 등 여러 분야에 로봇이 도입되는 추세라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다를 도입하고 상용화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학습데이터 전문 기업 인피닉은 클라우드소싱 플랫폼 '마이크라우드'를 선보였다.

마이크라우드는 데이터 기술 및 비전 AI를 기반으로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했



인피닉이 CES에서 선보인 클라우드소싱 플랫폼 '마이크라우드'를 자동차 데이터 가공에 활용한 모습. /인피닉

다. 자동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매직핀' 기능을 도입한 자동화로 효율성도 높였다. 또 인피닉은 실내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기술을 공개했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용 차량을 활용해 RGB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나이트 비전 카메라 등으로 실제 도로 위 360도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쇼핑몰, 공공장소, 편의시설 등 건물 내부의 경우 수집용 로봇을 운행해 디지털 공간 데이터를 모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해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지능형 음장보안 센서 기술 등을 전시했다. 또 기술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을 초청,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상담도 진행했다.

AI 반도체 기술은 AI 알고리즘의 복잡한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칩 개발 기

술로, 40테라플롭스(TFLOPS) 수준의 연산 능력으로 최고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전력 소모는 15와트(W)에 불과하다.

ETRI 관계자는 "일본,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기술에 관심을 보였는데, AI 스피커와 융합한 센서 기술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며 "AI 반도체 관련 온라인 화상회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공공·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화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 성장 동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업 노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ES에 참가했으며, AI 모델 자동 경량화 솔루션인 '넷츠프레스'를 선보였다. 넷츠프레스를 활용하면 전문 엔지니어가 없어도 단기간 경량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얼굴인식 기반 출입제어 솔루션과 객체 인식 기반 매장 관리 솔루션도 시연했다.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 지원으로 참가한 딥핑소스는 AI 기반으로 개인 식별정보는 제거하고 학습에 꼭 필요한 정보만 보존하는 데이터 익명화 기술과 저작권 보호 기술을 공개했다. 딥픽셀과 아트랩은 AI를 기반 증강현실(AR) 뷰티 가상 착용 솔루션인 '스타일AR'과 피부 데이터 분석·케어 솔루션인 '스킨로그'·'매니폴드'를 선보였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LG올레드 TV.

/LG전자

## LG 롤러블·올레드TV... '최고 제품' 영예



LG롤러블.

올레드 TV, 7년 연속 수상 '패거' 롤러블, 모바일기기 부문 '최고상'

LG 롤러블이 CES2021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LG 올레드 TV도 다시 한번 수상에 성공했다.

LG전자는 1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엔가젯이 발표한 CES2021 최고상에 LG올레드 TV와 LG 롤러블이 각각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엔가젯은 CES 공식 어워드 파트너로, 매년 부문별로 최고 제품을 뽑아 시상한다.

LG올레드 TV는 7년 연속으로 TV 부문 최고에 올랐으며, 특히 올해에는 미니 LED 등 다양한 신제품 TV가 공개된 상황에서도 수상에 성공하며 높은

성능을 인정받았다. 앞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 선정 게이밍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엔가젯은 이 제품이 "풍부한 색상, 깊은 블랙 레벨 등 기존 LG 올레드 TV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 화질/음질 엔진인 알파9 4세대 프로세서가 영상을 분석해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 스피커로 가상의 5.1.2채널 입체음향을 내며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LG 롤러블도 모바일 기기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다. CES2021에 공식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컨퍼런스 영상에서 제품명과 디자인 일부를 공개하는 티징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재용 기자 iuk@

## 에이수스, 고성능 신제품 노트북 공개

일상·업무·게이밍 등 최적화 젠북 듀오 시리즈 등 대거 선보



ROG 플로우 GV301 & ROG XG 모바일.

에이수스가 전세계에 고성능 노트북 기술력을 뽐냈다. 휴대성과 고성능을 모두 충족하며 다양한 수요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수스는 12일과 13일(미국 현지시간) CES2021에 라이프스타일과 비즈니스, 게이밍 등에 최적화한 노트북 신제품을 공개했다.

선보인 제품은 ▲젠북 듀오 시리즈 2종(젠북 프로 듀오 15 올레드, 젠북 듀오 14)▲젠북 시리즈 2종(젠북 13 올레드, 젠북 플립 15)▲TUF 대쉬 FX516▲ROG 스카 2종(ROG 스카 G533, ROG 스카 G733)▲ROG 제퍼러스 듀오 GX 551▲ROG 플로우 GV301 & 외장 그래픽 ROG XG 모바일 등이다.

젠북 프로 듀오 15 올레드(UX582)는 화질에 집중한 모델이다. 고성능 4K OLED HDR 나노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색재현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블루라이트를 최소화해 눈건강도 지켜준다. 인텔 10세대 i9프로세서와 엔비디아 GPU 등 고성능칩에, 스크린패드 플러스로 듀얼 디스플레이도 지원한다. 스타일러스 펜도 기본 탑재해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도 있다. 젠북 듀오 14(UX482)는 16.9mm의 얇은 두께와 1.6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풀HD 나노엣지 터치 디스플레이와 틸트형 스크린패드 플러스는

활용도를 높여준다. 젠북 13 올레드(UX325)는 1.14kg 무게에 풀HD OLED 디스플레이, 배터리 사용 시간 13시간 등을 내세웠다. 젠북 플립 15(UX564)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15인치 컨버터블 노트북이다.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TUF 대쉬 FX516은 최대 11세대 인텔 i7-11375H CPU와 지포스 RTX GPU를 탑재했다. 그러면서도 19.9mm 슬림한 두께와 2kg 가벼운 무게를 구현했다. MIL-STD-810H 밀리터리 인증도 받았다.

ROG 스카 G733은 최대 300Hz의 고주사율에 3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낸다. 최신 라이젠 9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GPU에 최초로 광학식 키보드를 탑재해 게이머들 수요를 노린다. 기존 모델보다 크기도 7%나 줄었고, 90Wh 고용량 배터리로 사용 시간도 늘렸다.

다목적 제품도 있다. ROG 제퍼러스 듀오 GX551은 ROG 스크린패드 플러스를 활용할 수 있어 게임과 영상 작업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액티브 에어로 다이내믹 시스템 플러스로 저소음도 실현해냈다. /김재용 기자

대웅제약



꼼꼼한 엄마들이 제대로 고른 대세비타민

# 임팩타민

필수비타민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들고!**



광고심의필 2020-1540-003005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비타민B의 더블임팩트 효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 드셔본 분들의 추천!

한 번 경험해보신 분들이 임팩타민을 추천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필수 비타민B 8종을 짝!

필수 비타민B 8종을 모두 함유하여 피로회복부터 에너지 생성까지 도움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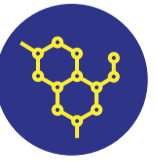
### 편리한 복용!

냄새를 최소화한 소형정제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

활성형 벤포티아민(B<sub>1</sub>)이 들어있어 생체이용율이 최대 8배 우수합니다.



### 항산화성분에 UDCA까지!

필수비타민B 8종은 물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부터 아연, UDCA까지 담았습니다.



- 육체피로
- 체력 저하
- 눈의 피로
- 구내염
-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임팩타민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판매약국찾기)

<http://www.impactamin.kr/>

# 코로나에도 '벤처붐' 활활... 펀드 6.5兆·투자조합 206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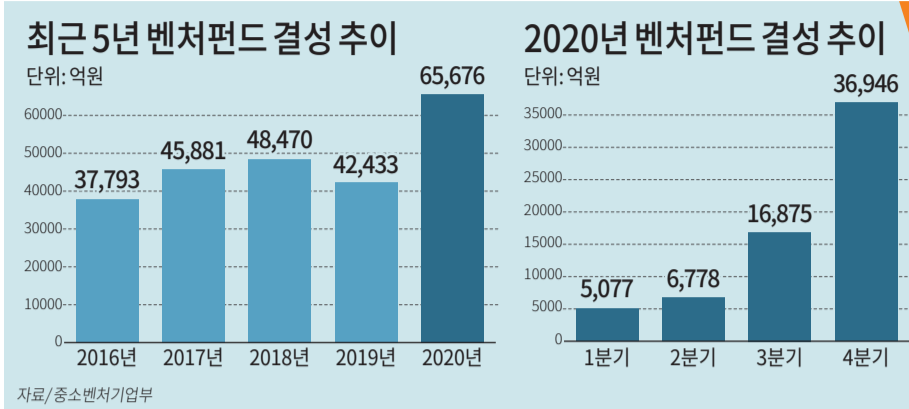
중기부 2020 벤처펀드 결성 실적  
벤처펀드·투자조합 역대 최대  
모태펀드, 민간참여 비중물 역할  
개인·외국인 투자는 감소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타 올랐다.

지난해 새로 결성한 벤처펀드가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며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 수도 지난 한 해 역대 최대인 206개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도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는 6조5676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2016년 3조 7793억원, 2017년 4조5881억원을 기록한 후 2018년엔 4조8470억원까지 늘었



다. 그러다 2019년엔 4조2433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 6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소재·부품·장비펀드 등의 결성이 본격화된 3·4분기에 1조6875억원, 4·4분기에 3조6946억원으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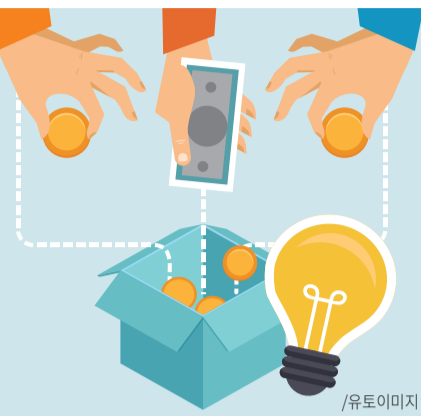
2020년 신규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부문이 2조2465억원이었고, 민간부문 출자는 4조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태펀드 등 공공이 비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투자를 대거 유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민간 출자는 정책기관 등 출자가 늘면서 3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52%(1조 4777억원)나 늘었다.

특히 민간의 경우 2019년 당시 2740억원에 그쳤던 연금·공제회가 지난해 무려 237% 증가한 9242억원이나 출자했고 은행(1410억→2544억원), 보험(500억→1282억원), 증권(954억→



0.3%포인트(p) 줄었지만 모태펀드가 이끈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은 2019년(1조2431억원)보다 오히려 7729억원 늘었다.

모태펀드가 벤처투자시장에서 타 기관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신규 결성금액 기준으로 상위에는 ▲에이티벤처투자조합20(4669억원)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3420억원) ▲LB넥스트유니콘펀드(3106억원) ▲2020 IM M 벤처펀드(2210억원)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펀드(200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해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이 역대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하면서 최고액을 달성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며 특히, 모태펀드의 비중이 줄면서도 다른 민간, 정책기관들의 출자를 대규모로 이끌어내면서 투자 여력을 확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신년 특별하게” 완성車업계 감성마케팅 활발

르노삼성 새해문구·가훈 작성  
현대 몸과 마음 위로 '충전포차'  
기아 전시장 방문자 추첨 경품 증정  
쌍용 안심케어패키지 무상 제공

국내 완성차 업체가 2021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감성 마케팅을 진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새해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전시장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서예)로 새해 소망 문구나 가훈을 작성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고객들에게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고, 2021년 신축년에는 원하는 바 모두 이루기를 함께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가까운 르노삼성 전시장을 방문해 원하는 문구(30자 내외)를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문구는 화선지(70X30cm)에 전문 서예가가 작성해 표구까지 완료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는 전시장 방문 예약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전시장에서 차량 구매 상담을 받거나 원하는



현대차 온라인 충전포차 이벤트 '충전포차 AR 필터' 이미지

는 모델의 시승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고객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충전포차'를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충전포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집에서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들은 온라인 충전포차 '충전지

수 테스트', '충전포차 AR 필터'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힐링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충전지수 테스트는 몸과 마음의 충전지수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통해 충전이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현대 차 [茶]'를 추천받는 프로그램이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집중한잔·생기한잔·여유한잔·휴식한잔 등 본인에게 맞는 차를 추천받은 후 이를 SNS에 공유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차 4종이 포함된 '충전포차 킷'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새해를 맞아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기아차 전시장 방문자 중 이벤트 참가 동의 소비자는 추첨을 통해 삼성 더세로 TV, 페이스북 오콜러스 퀘스트, 기아차 계약금 10만원 지원 쿠폰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쌍용차는 차량 구매 고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쌍용차는 전 모델 구매조건과 무관하게 안심케어 패키지(프로바이오틱스 탈취제/각종 클리너/방향제 등)와 실시간 커넥티드 기능 지원과 첨단운전자지원기능이 지원되는 2채널 블랙박스 '아이나비 Z700'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 스캐터랩, 카톡 대화 '갓허브' 공유 시인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1700개 카톡, 오픈소스 플랫폼 공개  
일부 데이터 실명·지역 등 포함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카톡 대화 문장을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갓허브'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1700개의 카톡 문장이 15개월간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캐터랩은 14일 "자체 조사 결과, 개발팀이 2019년 '갓허브'에 오픈 소스로 공개한 'KG-CVAE-인공지능한국어 자연어처리(NLP) 연구 모델'에 내부 테스트 샘플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발견한 즉시, 해당 갓허브 레파지토리는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 연구에는 내부 테스트를 위해 샘플로 추출한 100건의 데이터와 개별 문장 환산시 1700건이 포함돼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대화 중 실명은 '〈NAME〉', 숫자는 '〈NUM〉'으로 자동화 비식별 처리를 했으나 기계적인 필터링 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00건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20여건의 실명은 물론 지역, 직장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스캐터랩은 카톡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연애 상황을 분석해주는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이 올린 카톡 데이터 100억 건을 데이터로 AI에 학습시켜 이루다를 개발했다.

스캐터랩은 "이는 한국어 자연어처리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것이었으나, 데이터 관리에 신중하지 못했고, 일부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대화 패턴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캐터랩 전 팀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해당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사내 메신저 채널인 '슬랙'에 대해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캐터랩은 또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용자분들의 마음이 흡족하실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한진, 택배종사자 대상 출장 건강검진

뇌심혈관 등 60개 항목 검진

한진이 연초부터 자사 택배종사자들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한진은 택배기사, 간선기사, 집배점장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출장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해 10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건강보호 조치 마련 ▲심야배송 중단 ▲분류지원인력 1천명 단계적 투입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4억5000만원을 부담해 뇌심혈관 검사 등이 포함된 건강검

진을 1인당 연 1회 지원한다.

특히 건강검진은 병원방문이 어려운 택배기사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해 검진버스가 1월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약 1000명의 택배기사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전국 100개의 한진택배 터미널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항목은 뇌심혈관 검사, 혈액검사, 지질대사, 고혈압, 간 기능, 관절염 등 약 60개다.

/김승호 기자



대화형 시인 '이루다'.

“안녕 👋  
난 너의 첫 AI 친구 이루다야”  
루다랑 친구하기 🤖

/핑퐁블로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與 “국민에 사죄하라” 野 “법원 판결에 존중”

‘국정농단’ 朴, 징역 20년 판결 반응  
민주당 “朴, 민주주의에 오점 남겨  
국민의힘, 역사적 공동책임 명심”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반복 안돼  
민주주의·법질서 위해 노력할 것”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차분하게 반응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엎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사면 논란에 중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야생멧돼지 ASF 전국 확산 조짐... 방역 강화

중수본, 12개 시군서 941건 발생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방역울타리를 넘어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하지 않은 사육돼지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지역은 화천(343건), 연천(314건), 파주(98건), 인제(42건), 철원·파주(34건), 양구(33건) 순으로 많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내달 백신접종... 11월엔 ‘집단 면역체계’

민주당-정부, 백신·치료제 무상공급 5600만명분 확보... 물량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할 뜻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오는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내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1

월까지 집단 면역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집단 면역 체계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만큼, 당·정이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물량 확보도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백신은 중앙에서 의료기관에 보내는 체계를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량을 보낼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침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작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김성주 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부분적으로 허용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관련 논란과 관련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김 본부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완화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도 전했다.

/최영훈 기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고용부, 25일부터 접수... 내달 지급

공공 돌봄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5일 9시부터 내달 5일 6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형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서비스 7종

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공고일(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한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0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소기업창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으므로 이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심사 완료 후 2월말에 일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식 출범

수소산업 중심 혁신성장거점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수소산업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14일 이 같은 비전을 선포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원 확보와 청장공모 등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분야 융·복합을 통해 수소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달

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2.0’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외부기업뿐 아니라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조성비가 이하 분양, 수익계약 허용,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 용수공급 시설 등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총 사업비 42억원 규모의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신산업 투자가 촉진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도록 규제혁신 과제 및 참여기업 발굴, 실증특례 컨설팅 지원 등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수소선도 도시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수소법’ 시행에 맞춰 수소전문기업 지정, 그린수소 실증 확대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립대 “등록금 동결 결정” vs 학생 “인하”... 입장차 여전

유학생 이탈 등 재정난 불구  
코로나 여파, 당국 정책 등에  
따라 올 등록금 동결하기로

학생들, 캠퍼스 시설 이용 안해  
원격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주장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인하’로 대학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올해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왔다.

서울대는 “최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등심위는 1년간의 등록금을 산정하는 심의기구다. 서울대 등심위에는 총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21학년도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9명의 위원 중 학부학생위원 2명, 대학원학생위원 1명 등 총 3명이 학생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서울대 측은 1~2차 등심위에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은 1.2%였다. 학교 측은 등록금이 2009년부터 동결·인하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을 통해 공정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

국 동결로 의결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장학금 규모가 18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히려 전체 예산은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장학금 확충 금액은 약 10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올해 대학에 허용된 최고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은 1.2%다. 고등교육법은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2%다.

전북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부족한 예산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유희철 학생처장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학생 복지나 교육 등에 어려움에 없도록 재정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와 공주대도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런 등록금 동결 기조는 아직 등록금 결정하지 않은 국립대와 사립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등록금 환급 요구가 강했던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도 예정돼 있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나 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

을 지원한다.

서울 사립대 한 관계자는 “십수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인하와 지난해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유학생이 이탈하는 등 대학 대부분이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당국이 등록금 동결·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 채 등록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덮치며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됐고 캠퍼스 시설도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는 대학 측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학생들이 ‘인하’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796명 가운데 87.4%가 ‘등록금 액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는 응답자 923명 가운데 전액 장학금 수령자 127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로, 수업의 질은 하락했으나 예년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2022학년도 수능 국어, EBS 연계율 축소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변경  
연계율 기준 70%서 50%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국어영역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형 수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EBS 연계율도 낮아진다.

우선, 2022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는 선택형 수능으로 변경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수능 국어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렀지만, 올해부터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를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각 11문제씩 출제돼 이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안내’에 따르면 기존 화법, 작문, 언

어 시작하던 국어 시험지가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으로 시작한다. ‘독서’와 ‘문학’의 출제 문항 수는 기존 15문항에서 2문항씩 늘어나 각 17문항씩 출제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기존 모의고사 형식과 달라 다소 생소하게 여길 수 있으므로 어느 과목에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야 할지를 미리 구상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BS연계율은 대폭 낮아진다. 기존 70%에서 50%로 하향된다. 국어 영역에서 중 연계 체감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문학’이다. ‘독서’는 EBS 연계교재 지문에서 주제나 소재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체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EBS 지문 주제나 소재를 바탕으로 관련 글을 읽거나 어휘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대부

분 학생은 EBS 연계교재 외에 다양한 지문을 연습하면서 ‘독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추세다.

그러나 ‘문학’은 다르다. 다양한 작품을 접하기도 하지만,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깊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우연철 소장은 “연계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문학’이므로 이를 공부할 때에도 EBS 교재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수능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영역별 학습방법까지 함께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어 영역에서는 여전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필수적인 역량이고 근거를 꼼꼼히 찾아가면서 문제 풀이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과기대-노원구, 지역상생 머리 맞대

협력·교류 도모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3일 교내 도서관 에스티아트(ST Art)홀에서 ‘대학, 지역상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과기대가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수행 및 연계협력력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이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음’은 서울과기대가 지역 공동체 등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온 프로젝트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속의토론·세미나·포럼에 이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리빙랩 운영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원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의제 속의과정 추진 현황 공유(사단법인 이음 김중수 연구위원) ▲노원구와 대학연계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

터 김소라 센터장) ▲성북구청 사례로 본 대학과 구청의 협업(이현웅 서원대 교수)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가 마련됐다.

이어 지역상생의 길에 대한 온라인 참여자와의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은주 시의원, 최광빈 노원구 힐링도시추진단장, 이철호(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대표, 김종선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노원구와 지속적인 상호협력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 세 번째)이 전남교실ON제작팀, 허준석 범박교 교사 등 11인(단체 포함)을 선정해 ‘2020 희망교육대상’을 수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선정

교육인 8명, 교육기관 3곳 수상

신애선 서울대 교수와 최석훈 한국해양대 교수 등 교육인 8명과 교육기관(단체) 3곳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2020 희망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과 ‘희망교육 멘토단’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 현장 숨은 영웅을 선정해 ‘2020 희망교육대상’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 희망교육대상’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제안으로 최고진 세종시 교육감 등 9인의 ‘희망교육 멘토단’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심사위원 7인의 심사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11인(단체 포함)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기관(단체) 부문에서는 ▲전남교실ON제작팀 ▲서울대 관악 학생생활관 ▲두루유치원이 뽑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경기 범박교 허준석 교사 ▲인천시 교육청 권상준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이연조 사무관 ▲전북교육청 김은희 장학사 ▲강릉경강대 교수 ▲박현수 백석문화대 교수 ▲신애선 서울대 교수 ▲한국해양대 최석훈 교수가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 정성원 세종대 교수, 한국셰페드학회장 취임

세종대학교는 정성원 건축학전공 교수(사진)가 제6대 한국셰페드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한국셰페드학회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관련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학문연구 외에도 전국적으로 셰페드 관련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셰페드 인증, 법규제정 등에 관여

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학회장 취임 후 ▲학회와 논문 위상 제고 ▲국제적 교류 확대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학회의 재정확보 등 4가지 성취 목표를 세웠다. /이현진 기자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가을철 초미세먼지 속  
**유해성분 증가**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전작권 전환, 국군 야생성 회복부터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새해들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등 군 수뇌부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보도 속에서 북한은 지난 12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무기' 개발의지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국가가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대이지만, 한국전쟁(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훈련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유엔군이 국군의 보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이러한 지휘관계는 이어졌고, 주권국가임에도 작전통제권이 없던 한국은 1994년이 돼서야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그들의 판단에 의해 우리에게 넘긴 것이지, 한국이 요구를 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국군은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주한미군이라는 비닐 하

우스 속에서 성장해 북한을 비롯한 외부 위협에 대한 자주적 행동과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군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 군 원로들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의 국방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매우 중요한 전력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미군 등에 업혀있을 수만은 없다.

그들이 자전거를 잡아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붙잡아 두어야 한다. 국군이 스스로 자전거 조항장치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빠른 폐달질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미군이라는 온실 속에 야생성을 잃은 국군이 자주국방이라는 자전거를 능숙히 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미군의 등에서 내려 걸음마를 해야하고 걸음마 다음에는 자전거 안장에 스스로 올라 미군이라는 보조바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으로부터 3단계 검증과 함께 자주적 군사력 발휘를 위한 여러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

당장 눈에 웅장해 보이는 '경항공모함'과 '무기체계' 도입보다, 국군이 한반도 산천초목에서 삶과 같이 뛰어나며 싸울 수 있는 야생성 회복이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의 초석이다.

/captinm@metroseoul.co.kr



캠코,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캠코는 맞춤형 교육기부 활동 및 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1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글누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캠코브러리 26호점' 개관식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캠코는 맞춤형 교육기부 활동 및 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1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글누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캠코브러리 26호점' 개관식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 아름다운가게에 1000만원 상당 제품·기증품 기부

애경이 1000만원 상당의 애경산업 제품과 함께 계열사 임직원들이 모은 의류·도서·잡화 등 650종의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고 14일 전했다. 애경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나눔과 순환을 위한 기부행사 '아름다운 특별전'을 진행했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된 기증품의 수익금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정착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이사(오른쪽), 윤여영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애경이 1000만원 상당의 애경산업 제품과 함께 계열사 임직원들이 모은 의류·도서·잡화 등 650종의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고 14일 전했다. 애경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나눔과 순환을 위한 기부행사 '아름다운 특별전'을 진행했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된 기증품의 수익금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정착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이사(오른쪽), 윤여영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 교통사고와 한방치료



김래영 원장의  
건강칼럼

최근 연이은 한파와 폭설로 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20년 만의 최강 한파'로 한강은 물론 바다물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 3월까지 폭설 가능성은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발 빠른 사고대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 치료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으면 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짧게는 3~4일,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통사고 환자의 70~80%는 골절이나 장기손상 없는 근육염좌, 척추염좌인 경우가 많고, 척추 통증이나 근육통과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진단장비로는 드러

나지 않아 그 고통은 환자 본인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염좌, 염증, 통증, 관절통, 어지럼증, 팔다리 저림, 턱관절 이탈,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방치료를 통해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한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어혈이란 말 그대로 피가 멎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특정 부분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뭉친 근육과 어혈을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혈관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며, 어지럼증, 두통, 기력 저하, 만성피로 등 다양한 후유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때에는 양방의 영상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복합적인 이상 증세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한방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한의원이 많아졌다.

교통사고 한약은 어혈 제거와 기혈

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체질,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침, 뜸, 부항, 산삼약침, 사혈요법, 고주파 치료 등과 같은 물리치료는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맞춤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뜸은 통증 완화, 어혈 제거를 돕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 사고로 인해 긴장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대나무통으로 제작된 전통방식의 불부항 치료는 피부밑의 나쁜 피나 고름을 제거해 주는 것과 동시에 단순 타박 등 외상성 질환과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전침기(침전극저주파치료기)는 경혈 부위에 침을 찌르고, 전침기를 사용해 침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요법으로 침자극과 전기자극을 동시에 쥘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 아울러 좋은 예후를 위해선 해당 한의원에 전문적인 물리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보험적용이 되는 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평상시에도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 옥션, 루게릭병 환우 위해 5200만원 지원

## 깨끗한 나라와 희희낙찰 캠페인 기금·물품 승일희망재단에 전달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이 '깨끗한 나라'와 함께 진행한 기부 캠페인 '희희낙찰'을 통해 거둔 총 5200만원 상당의 기금과 물품을 승일희망재단에 전달했다.

옥션의 '희희낙찰'은 자선경매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된 고객 참여형 기부 행사다.

지난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행사에서는 EXO 수호, 소녀시대 수영, KIA 타이거즈 야구선수 김선빈, 가수 김범수, 가수 선 등 5명의 셀럽이 기증한 애장품 경매를 통해 나온 수익금과 위드아이스(WITHICE) 기부상품 판매 응원 댓글 챌린지 등으로 약 2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응원 댓글 챌린지의 경우 댓글이 달



지난 13일 랜선으로 진행된 옥션 '희희낙찰' 캠페인 기부금 전달행사. 왼쪽부터 이베이코리아 커뮤니케이션부문 홍윤희 이사, 승일희망재단 선 대표, 깨끗한나라 홈앤라이프사업부 한재신 전무

/이베이코리아

릴 때마다 옥션이 나눔쇼핑 기금에서 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희희낙찰' 행사에 참여한 깨끗한나라는 2600만원 상당 위생용품을 마련했다. 기부 물품은 평소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루게릭병 환우에게 필요한 성인용 위생용품 '봄날', 간병 중 감염 예방을 위한 '깨끗한 나라 클린 손소독젤' 등이다.

고객 참여로 조성된 기금과 지원 물품은 가수 선이 공동 대표로 있는 승일희망재단에 전달, 루게릭요양센터 건립과 루게릭병 환우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사멸돼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희귀 질환으로 국내에 3800여명의 환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사

- ◆IBK기업은행 ◇부행장 승진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김은희 △CIB그룹 박주용 △디지털그룹 전병성
- ◆KTB투자증권 ◇본부장신규선임 △리테일본부 상무 김진태
- ◆경찰청 <승진> ◇경정 △형사 장진욱 △외사 기획 김현옥 △보안기획 임재원 △보안사 이버 박광민 △사이버안전 정영오 △홍보 김상균 △감사 황태훈 △인사 이순구 △정보1부 재원 △보안수사 김선안 △감찰 윤석일 △교통안전 문숙호 △교통안전 김선권 △정보4부 준영 △교육정책 최치영 △정보4부 정진성 △정보2배재형 △경호 변영찬 △범죄정보 이승우 △수사 신용수 △범죄예방정책 양희승 △정

- 보통신 김유성 △여성안전기획 이상규 △감찰 이성준 △혁신기획조정 김동민 △혁신기획조정 배철민 △인권보호 이준형 △정보3부 가람 △재정 강승호 △경비 박한상 △외사 기획 박노원 △경무 신동재 △혁신기획조정 지원 △중대범죄수사 김병철 △서울광진 교통 박정애 △서울중로 청운파출소 함연자 △경기남부 제1부 경무 김봉주 △서울 정보관리부 정보1장미나 △광주동부 여성청소년 박순자 △인천중부 경비교통 유영미 △성남중원 생활안전 이봉우 △세종 경무 김선향 △대구 제1부 정보안미연 △서울송파 교통 조순덕 △과학사 강은경 △부산사하 수사 이은실 △서울은평수사김진희 △경철인재개발원 교무 김진주 △서울 흥보 김셋별 △서울동대문 수사 박선영 △여성안전기획 김영민 △서울서

- 초 양재파출소 이주원 △서울 여성청소년 박미혜 △안산산록 생활안전 손현서 △서울동작 여성청소년 정은주 △수사구조개혁 이해수 △서울용산 여성청소년 강미현 △서울수서 112종합상황 김문희 △경북 제2부 수사박정이 △구리 생활안전 서미숙 △서울중앙 경무 유양인 △부산해운대 여성청소년순주희 △인천 제1부 경비 이문철 △항공이요원 △중대범죄수사 임영민

## 부음

▲전영대씨 별세, 전상재(NH투자증권 구로WM센터장)씨 부친상 = 14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7:00,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610-9671.



# 북극발 한파에冬장군도 '꽂꽂'... 난방가전·방한용품 불티

전자랜드, 전열기 매출 411% ↑  
온풍기 265%, 난로 253% 급증  
24일까지 '겨울나기템 특별전'

이커머스 업계, 관련매출 급증세  
귀마개 1만3117%, 장갑 462% 등

올해 초 북극발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면서 난방가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가전 외에 보조 난방용품 판매량도 함께 늘었다.

전자랜드가 지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난방가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전열기는 411%, 온풍기는 265%, 난로는 253%, 전기장판(전기·온수매트)은 60% 판매 성장했다.

난방가전은 매년 판매의 등락이 크지 않지만, 올해는 날씨가 적극적인 마케팅



고객이 전자랜드에서 난방기기를 살펴보고있다.

/전자랜드

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난방가전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랜드는 오는 1월 24일까지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겨울나기템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전자랜드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기요, 전열기

기, 온풍기, 가습기 등 대표 겨울 가전의 인기 모델을 최대 52%까지 할인 판매한다.

집안 난방 효율을 높이는 보조 난방용품 판매도 작년 동기 대비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에 따르면 1~13일 발난로와 손난로는 각각 400%, 300% 판매량이 늘었다.

타임커머스 티몬에서는 1~12일 단열시트·문풍지 등의 단열용품이 198%, 난방텐트는 1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필수품인 담요(518%), 핫팩(178%), 발열내의도 200%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흡웨어의 신장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패딩 등 아우터의 증가세는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도는 수준인 것에 비해, 코로나19로 사회

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실내 생활에 적합한 잠옷, 실내복 등의 흡웨어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 남성용 흡웨어 323%, 여성용 109%, 유아동이 259% 올랐고, 수면잠옷도 82% 상승했다.

방한용품 수요도 폭증했다. 지난해 대비 귀마개 매출이 1만3117% 급증했고, 장갑(462%), 넥워머(249%) 등의 판매량도 높아졌다. 연이은 폭설로 스노우체인(1860%), 성에·김서림방지용품(295%)을 포함한 자동차 동계용품도 판매가 크게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포근했던 작년과 달리 북극발 한파가 올 겨울을 강타하고 있다"며 "영하 10도 전후의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난방가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이마트 "올 설, 지인에 건강식품 선물해요"

설 사전예약 선물세트 57종 마련  
50% 할인, 1+1 등 프로모션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식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건강식품 선물세트'가 5년 넘게 선물세트 매출 2위를 유지해 온 '조미료 선물세트' 마저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이마트는 이번 설 사전예약 기간 동안 총 57종의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설 사전예약 기간 동안 운영했던 14종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건강식품 선물세트 구매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이마트는 '휴럽 매일습관 나이트킵킨/모닝사과' 제품을 행사카드로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초저가 세트를 기획했으며, '녹십자 웰빙 진액세트' 5종과 '동원 천지인 세트' 3종은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밖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홍삼, 산삼배양액 등 주요 상품들의 경우 기획물량을 최대 2배까지 늘렸으며, 지난 추석 처음 선보인 '몸엔용 녹용세트 4종' 등 신규 상품 운영을 확대했다.

이마트가 건강식품 선물세트 판매 확대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



건강식품 선물세트.

/이마트

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건강식품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

이마트가 연도별 설, 추석세트 매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설 명절부터 통조림, 조미료가 선물세트 매출 부동의 1, 2위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추석에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식품 수요가 10.2% 급증하며 처음으로 건강식품 선물세트가 조미료 선물세트를 넘어섰다. 현재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에서도 건강식품 선물세트 신장세가 돋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12일까지(사전예약 기간 12월24일~1월31일) 이마트 사전예약 매출 분석 결과 건강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74.4% 신장하며 4배 이상 늘었다.

한편 이마트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추석 처음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던 '건강선물세트'도 물량을 늘려 판매 확대에 나선다.

이마트는 작년 추석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위생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기획했으며, 올해 설에는 지난 추석 판매량 1만개 대비 3배 물량인 3만개를 기획, 판매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 CU, 모든 PB상품에 재활용등급 표기

친환경소비 앞장... 업계 첫 추진

CU가 업계 최초로 모든 PB 상품에 재활용 등급 표기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

제조 및 유통을 맡고 있는 PB상품에 대해서는 생산 시점부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를 적극 이행해 환경보호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연계된 조치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포장재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포장재에 대한 등급 평가 기준(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을 마련한 바 있다.

CU도 지난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판매중인 모든 PB상품에 대해 정부 기준에 따라 포장재 등급 평가를 완료했다. 그 결과, 전체 PB 상품 중 86%의

상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고, 9%가 보통, 나머지 5%가량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

현행 재활용 보통 이상 등급의 포장재로 만들어진 상품의 경우 등급 표기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CU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 PB 상품에 등급 표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협의해 포장 재질 변경을 추진하고 제품 특성상 포장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들의 단계적인 퇴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CU는 1분기 내 등급 표시를 진행하고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공조해 연내 전체 PB 상품의 등급 표시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해양생태계 보호인증 '동원 참치회 선물세트'

동원산업, 총 28종 구성

동원산업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해양관리협의회(MSC)의 '해양생태계 보호인증' 참치를 담은 '동원 참치회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원산업은 국내 수산기업 최초로 참치를 조업하는 선망어업과 연승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했다. MSC는 지속가능수산물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비영리기구로, 해양생태계와 어

종 보호 등 조업 과정 전반의 30여 가지 요소를 평가해 MSC 인증을 부여한다.

동원산업 선물세트는 총 28종으로 ▲참치회 선물세트 10종 ▲참치·연어 혼합 선물세트 1종 ▲연어 선물세트 4종 ▲신선 수산물 선물세트 13종으로 구성됐다.

동원산업은 MSC 인증 참치로만 구성된 '동원 참치회 에코라벨 세트' '동원 참치회 시그니처 세트' '동원 참치회 정성 세트' 등 3종을 선보인다. MSC 인증 참치는 국내 최대 수산기업 동원산업이 직접 어획하고 영하 60℃에서 급속 동결해



동원 참치회 선물세트.

/동원그룹

더욱 신선하며, 가공부터 유통까지 직접 관리해 믿고 먹을 수 있다. 동원산업 설 선물세트는 현대백화점, 할인점(메가마트, 트레이더스)을 비롯해 동원몰, 11번가 등 각종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이마트24,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한은과 MOU... 1만원 미만 입금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현금결제 후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IC카드 또는 모바일 현금카드 통해 입금 받게 된다.

이마트24는 전국 매장에서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지난 4월 말 한국은행 본부에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는 한국은행의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마트24에서 1000원 미만의 잔돈 발생 시 교통카드 또는 SSG페이(쓱페이) 앱을 통해 거스름돈 만큼의 충전(적립)이 가능했다면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1만원 미만의 거스름돈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 IC카드의 경우 거스름돈 발생 시 매장 직원에게 직접 실물 카드를 건네면 되며, 모바일 현금카드는 모바일 앱 '모바일 현금카드'의 '잔돈적립'을 눌러 생성된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통해 거스름돈 입금이 가능하다.

'모바일 현금카드'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현금카드'를 내려받은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만들 수 있다. 14일 기준 농협, SC, 우리, 신한, 기업, 국민, 수협,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광주, 농축협 등 15개 기관에서 발급한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며 편의점에서 현금 결제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마트24가 최근 3년간 결제 수단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현금 결제 비중은 2018년 12월 33.7%, 2019년 12월 30.7%, 2020년 12월 21.5%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 “결백” vs “나보타’ 폐기”... ITC 최종판결에도 분쟁 여전

대웅제약

메디톡스

ITC “대웅, 메디톡스 균주 도용”  
메디톡스, 균주 사용금지 요청 계획  
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로 안 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왼쪽)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신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동시에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던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 ◆“대웅, 메디톡스 균주 훔쳤다”

14일 공개된 최종 판결문에서 ITC 위원회는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명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대웅과 에블루스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보툴리눔 독신 제제 ‘주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ITC에 이를 제소했다. ITC는 지난

12월 16일(현지시간)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주보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 바 있다.

하지만 최종 판결 이후에서 대웅제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양사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럴 경우,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나보타의 품목허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범죄 행위는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

다”고 말했다.

## ◆대웅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최종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는 근거는 ‘ITC가 균주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는데 있다.

ITC는 대웅의 균주 도용을 명확히 인정했지만, 균주를 영업비밀 침해로 보지는 않았다. 메디톡신의 모균주는 지난 1979년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소에서 근무한 양규환 박사가 자신이 연구하던 Hall A-hyper 균주를 기증한 것이다.

ITC는 1979년 당시 위스콘신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균주는 다른 기관들로 자

유롭게 유포됐기 때문에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은 근본적으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균주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삼바, 역대 최대 수주... 글로벌 기업 도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수주 기록, 연간 약 2조  
올해 해외 생산 기지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수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록을 세웠다. 올해부터는 해외 생산 기지도 확보해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립 신임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13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다가올 10년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존립 사장은 첫 글로벌 데뷔 무대에서 “지난 10년은 사업을 안정화하고 생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다가 올 10년은 생산 규모·

사업 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을 동시에 확대하는 다각화된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세계 최대 바이오 컨퍼런스로, 올해는 11~14일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까지 5년 연속, 글로벌 주요 기업 발표 색션인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인천 송도에 10만평 규모로 제2바이오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향후 보스턴·유럽·중국 등에도 순차적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CMO 해외 생산 공장 확보도 검토해 국내외 사업 무대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해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본격 검토하고 기존 항체 의약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세분화·다각화, 백신 등으로 넓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존립 대표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든 사업부문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CMO의 경우 2020년 연간 누적 1조85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1, 2공장에 이어 3공장까지 총 생산능력에 근접한 수주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미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 투어, 가상 전시관 시스템 등 디지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규제기관과 고객사에 민첩하게 대응했다.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 골다공증 치료제 임상3상 추진

글로벌 임상 속도

셀트리온은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인 ‘CT-P41’의 임상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8월 CT-P41 임상 1상에 착수해 임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임상 3상은 총 5개국 4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24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3상 임상을 통해 CT-P41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집중 평가하는 한편, 프롤리아의 미국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2월에 맞춰 CT-P41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롤리아는 다국적제약사 암젠의 골격계 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의약품으로 골다공증 및 암환자의 골 소실 치료

제로 쓰인다. 시장규모는 암젠의 2019년 경영실적자료 기준 매출 약 3조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CT-P41이 올해 상반기 EMA 허가가 예상되는 CT-P17(휴미라 바이오시밀러)과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CT-P16(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39(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과 함께 셀트리온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후속 제품 허가를 목표로 하는 ‘2030 셀트리온그룹 비전’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 CT-P41 개발에 착수해 글로벌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미국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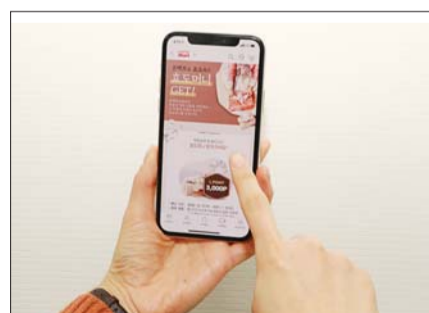
## 롯데마트몰 “부모님께 온택트 효도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주문시 효도머니

롯데ON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몰이 이달 31일까지 ‘부모님께 온택트 효도하기’ 행사를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 내에 기본 배송지에 부모님 배송지를 추가한 후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효도머니를 지급하는 행사다. 이 서비스는 롯데마트몰에서 ‘온가족 쇼핑ON(O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로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온가족 쇼핑ON’ 서비스를 첫 선을 보인 8월 대비 12월에 부피가 큰 쌀과 생수의 매출이 각 21.3%, 13.2%



부모님께 온택트로 효도하기 모바일 화면 /롯데쇼핑

신장했다.

행사 참여 방법은 행사 기간 동안 2개 이상 배송지의 주문 함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롯데마트몰 행사 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어플

##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2X’

에이블씨엔씨 어플가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2X’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은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집중 진정 앰플(30ml/1만8000원)이다.

병풀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단독 성분은 전성분으로 해서 예민한 피부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1세대 제품에 비해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10배 강화했다.

피부에 스며들 듯 물처럼 흡수되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된다. 해당 제품은 에이치앤바이오 피부 임상 연구센터에서 피부 진정 효과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대웅제약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진출

(위탁개발·생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대웅제약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허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꼽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올인원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협력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대웅제약의 세포치료제 생산 기술과 국내 최상위권의 제약영업·마케팅 역량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축적된 노하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기아차 '니로EV', 유럽 친환경 시장에서 질주

### 英 '왓 카 어워즈'서 소형 전기차 본상

기아자동차가 유럽 친환경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니로EV를 앞세워 환경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아차 니로 EV는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2만7049대 판매되며 8위에 오르며 1년 만에 2계단 올랐다. 판매량은 전년(9509대)보다 184.5% 증가했다.

또한 유럽 현지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기아차는 13일(현지시각)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 상 '2021 왓 카 어워즈'에서 e-니로(한국명 니로 EV, 이하 니로 EV)가 '소형 전기차'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2018년 피칸토(올해의 시티카)가 수상을 한 데 이어 ▲2019년 니로 EV(올해의 차), 피칸토(올해의 시티카) ▲2020



기아차 e-니로 영국 왓 카 어워즈 본상 수상.

/기아자동차

년 피칸토(올해의 벨류 카) ▲2021년 쏘렌토(올해의 대형 SUV) 등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니로 EV는 455km의 뛰어난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WLTP 기준)와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 등 최상의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개미'와 증시



기지수첩

염재인 (파이낸스&마켓부)

'동학개미운동'을 펼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사자' 기조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았지만, 최근 등락폭을 키우며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주식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12일 기준 74조4559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30일(65조6234억원) 대비 13.46% 증가한 수치다. 1월 투자자예탁금 평균 금액(69조9080억원)도 지난해 평균인 46조6235억원을 가뿐히 넘겼다.

코스피는 1월 들어 6.92%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4일부터 12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조6764억원, 1219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무려 8조5505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지지했다.

지난해부터 개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

다. 다만 코스피가 최근 조정장을 연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대표적인 예다.

증시 열기와 비례해 치솟고 있는 신용거래용자는 1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20조787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강한 구매세에도 코스피가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것은 반대세력 또한 존재한다는 의미다. 현재 외국인·기관의 매도세는 증시 부담이다. 실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2.17% 상승한 35.65로 지난해 6월18일(37.30) 이후 최대치였다. 공매도 대기 물량 등을 의미하는 대차거래 잔액도 47조1572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적극적인 투자 행렬을 보이면서 추락하던 우리 증시를 되살려낸 일등 공신이다. 또 외국인과 연기금에 맞서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는 누구도 쉽사리 바닥을 가능하기 어렵다. 개미들이 '빚투' 행진을 멈춰야 하는 이유다. /jji208@

# KT, eK리그 후원... '보는 게임' 키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제 스포츠 경기들이 개최에 차질을 빚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e스포츠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e스포츠의 정식 종목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e스포츠가 '보는 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 받으며 관련 산업 또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다.

KT는 이 같은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아프리카TV가 주관하는 'eK리그 2020'의 공식 후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eK리그 2020은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 4'를 기반으로 참가자들이 K리그의 22개 구단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e스포츠 대회다. 아프리카TV

가 단독으로 중계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국내 e스포츠 대회 중 최초로 국제축구연맹의 인증을 받았다.

오는 16일 벌어지는 최종 결승전은 올레 tv 뷰플레이에서 IPTV 단독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KT는 이번 eK리그 2020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통해 eK리그 경기 방송 내 광고와 경기장 설치물, 아프리카 TV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e스포츠 마니아들을 공략한 올레 tv 뷰플레이 마케팅을 전개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사과는 예치하지 않고 찾아오니 늘 주위가 요구된다. **48년생** 작은 일이 확정되니 햇살이 크게 비친다. **60년생** 사건 두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72년생** 귀한 기운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84년생** 차량안전에 유의.
- 37년생**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49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 와있다. **61년생** 자녀 일로 신경이 쓰이나 점점 지나 해결된다. **73년생**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탓하라. **85년생** 좀 더 사색하여 말하면 좋을 듯.
- 38년생** 서쪽으로 가서 다투지 않도록. **50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지인 소식에 상복 수이다. **62년생** 제3자의 모략으로 구설 생김니 오늘은 외출 자중. **74년생** 승진하게 되니 만사형통. **86년생** 연인과의 갈등으로 종일 짜증.
- 39년생** 여행 중에 먹는 것으로 주의할 것. **51년생** 한평생 믿던 사람 등 돌리니 허무. **63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줄 것이다. **75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87년생** 결연은 결을수록 질병은 완치된다 했다.
- 40년생** 공부에 평행하라 했으니 도전. **52년생** 상상력으로 용두사미 현실을 직시하자. **64년생** 핸드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76년생**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으니 저급하라. **88년생** 비교는 소통 부재가 아니겠는가.
- 41년생** 오늘 1과 6이 행운을 가져올 것. **53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비밀만 새 나간다. **65년생**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오니 운세가 좋아진다. **77년생**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89년생** 일신이 피곤한데 출장소식이다.

- 42년생** 지나친 자존심은 불리. **54년생**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66년생** 화를 참기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해보라. **78년생** 시기 질투는 일생 도움 되지 않는다. **90년생** 자칫 숫자 적는 것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
- 43년생**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치고 몰두하라. **55년생**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67년생** 외출할 때 도둑 수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자. **79년생** 새로운 창업에 장인이 힘을 실어준다. **91년생** 모임에 참석해 다투지 마라.
- 44년생** 식욕이 늘어나니 기쁘다. **56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온다. **68년생** 막혔던 금전 운세가 호전되어 감사한 날. **80년생** 부모의 돈이라도 공공에는 마음을 비우라. **92년생** 칭찬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 업무속도가 부쩍 증대된다.
- 45년생** 과거의 베푼던 공이 전환되어 길하다. **57년생** 서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69년생** 채권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 **81년생** 연인과 함께 생활할 멋진 드라이브를. **93년생** 동료 간에 힘이 없으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 46년생** 도시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듯. **58년생** 이비인후과 쪽의 건강을 조사해 보자. **70년생** 나갔던 목돈과 문서에 기쁨이 생긴다. **82년생**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면 이 세 중매인을 선택해보라. **94년생** 돼지꿈 결과에 기쁨이.
- 47년생**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여지자. **59년생** 복잡할 때 절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라. **71년생** 관세수가 따르니 가정불화 수인 듯. **83년생** 외도를 의심하지 말고 2세를 갖도록. **95년생** 보통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고 했다.



# 김상희의四季

퀼렌시아

각박하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도 한다. 맞다. 세상은 거칠고 사는 건 힘들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달프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필요한 건 휴식과 위로일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마음 편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은 집에서는 집안 일에 실 틈이 없고 회사에서는 업무에 쫓기느라 한숨 돌리기도 힘들다. 지친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위로받을 곳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상처 가득한 마음을 편히 꺼내놓고 이야기할 곳도 드물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즐겨 찾는지도 모르겠다. 가깝고 어느 곳이나 있고 모든 걸 잠시 잊고 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문학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 퀼렌시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퀼렌시아는 스페인에서 시작한 말이다. 투우 경기를 할 때 투우사와 싸우던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공간을 뜻한다. 현대적으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퀼렌시아라고 할 만한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현대인의 퀼렌시아로 적합한 곳이 공원 종교 공간도 있겠으나 명리상담을 생각한다.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곳이다. 평소 못한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상처 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누구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꺼낼 수 있으니 그것 자체로도 위로가 된다.

게다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방안도 찾을 수 있으니 힘을 얻는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땐 마음 한 자락을 내놓는 상담 시간이 휴식을 주고 치유를 불러온다. 편안함이 있으니 답안도 있을 것이다.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명리학은 현대인을 위한 퀼렌시아라고 부를만 하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첨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6	3	9	B	1	4	7	5
7	1	B	2	A	5	9	3
5	8	C	3	6	1	9	
A	6	9	4	C	3	8	B
1	C	2	B	A	5	6	
3		9	7	C	1	A	
C	2	6	7	A			1
	A	6	3	C	B	7	9
9	8	5	4	C	A	6	3
	B	1	9	6	A	2	C
9	5	4	C	2	8	1	6
7	C	6	5	B	9	1	8

부동소수점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8	□	□	□	□	9	□	□
2	□	4	□	□	□	□	□	□	3
□	□	9	2	1	□	□	□	6	□
□	6	□	□	□	□	2	□	□	1
□	□	□	7	□	3	□	□	□	□
9	□	2	□	□	□	□	5	□	□
□	2	□	□	8	9	3	□	□	□
5	□	□	□	□	□	4	□	□	2
□	□	3	□	□	□	7	□	□	□

정답

8	7	1	6	8	5	9	7	9	2
2	5	8	9	1	8	2	4	7	9
3	2	9	7	9	6	2	7	1	8
5	9	7	4	2	7	1	9	2	8
6	2	8	8	2	9	5	9	7	1
1	8	7	9	5	7	6	2	5	9
7	1	2	2	2	9	7	6	8	5
7	6	9	5	7	8	8	2	2	3
9	8	8	2	5	2	2	1	7	6
8	7	6	1	7	2	9	5	2	8
9	2	5	8	6	5	7	2	8	1
2	9	2	7	2	1	8	8	6	5

새로운 고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716호	



와인 스펙테이터 2020년 100대 와인에서 1위를 차지한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카스틸로 이가이 그랑 리제르바 에스페시알 등 10위권 와인.

## 구대륙 vs 신대륙, 당신의 선택은



안상미 기자  
Why, wine

### <86> 와인스펙테이터 제임스서클링 1위 와인

와인을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나뉘보자. 그간 신대륙은 '가성비'였고, 구대륙은 '가심비'였다.

와인의 세계에서 구대륙(Old world)이란 와인 생산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다. 와인 중추국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다. 전통이 있고, 유명세를 탄 와인들이 많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마음의 만족은 커지는 가성비(價心比)가 좋다.

신대륙(New world)은 비교적 와인 생산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다. 미국을 비롯해 칠레 등 남미와 호주 등을 말한다. 역사는 길어야 몇 백년이지만 신대륙 기후의 장점에 적극적인 신기술로 구대륙 와인에 버금가는, 때론 뛰어넘는 와인을 내놓고 있다. 가격 대비의 가성비로 보면 신대륙이 최고다.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와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최고로 평가한 와인도 각각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갈렸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지난해 말 선정한 '2020년 100대 와인' 1위는 스페인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지난해 말 2020년 최고의 와인으로 꼽은 아르헨티나 와인 '파타고니아 트리엔타 이 도스(Chacra Pinot Noir Patagonia Treinta y Dos) 2018'

(제임스 서클링 사이트)

의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카스틸로 이가이 그랑 리제르바 에스페시알(Boegas Marques de Murrieta Rioja Castillo Ygay Gran Reserva Especial 2010)'이다.

스페인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리오하에서도 대표와이너리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가 만든다. 카스틸로 이가이는 포도 재배가 좋은 해에만 만들어지며, 10년 이상 숙성시켜 나온다. 2010년은 리오하에서 최고로 꼽히는 해다. 유명한 와이너리, 긴 숙성기간, 최고의 빈티지답게 가격은 해외 현지에서도 140달러 안팎이다. 우리나라 국내 가격은 현지가의 최소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 100대 와인의 생산지로 보면 구대륙과 신대륙의 비중이 비슷했다. 구

대륙에서는 프랑스(20)와 이탈리아(19), 스페인(9) 와인이, 신대륙에서는 미국(29)과 아르헨티나(4), 뉴질랜드(4), 남아공(3), 호주(3), 칠레(2) 와인이 선택을 받았다.

제임스 서클링의 톱100 와인 가운데 1위는 신대륙 가운데서도 후발주자인 아르헨티나다. 보데가 차크라 와이너리가 피노노아로 만든 '파타고니아 트리엔타 이 도스(Chacra Pinot Noir Patagonia Treinta y Dos) 2018'이다.

이 와인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사막지역인 파타고니아에서, 재배하기 어렵다는 피노노아를, 내추럴 와인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보데가 차크라는 이탈리아 슈퍼투스칸의 원조라고 불리는 '사시까이아'의 일원이 세운 와이너리다.

와인 레이블 위쪽에는 해당 와인이 전체 생산된 와인 가운데 몇 번째 병인지 써져 있다. 제임스 서클링은 405번째 병을 시음했다. 2018 빈티지는 유난히 생산량이 작았다. 제임스 서클링은 2018 빈티지를 찾을 수 없다면 2016, 2017 빈티지를 대안으로 추천했다.

전체 100대 와인의 생산지로 보면 와인 스펙테이터와 마찬가지로 구대륙과 신대륙의 비중이 비슷했다. 신대륙에서는 호주(19)와 미국(11), 아르헨티나(9), 칠레(6) 와인이, 구대륙에서는 이탈리아(20)와 프랑스(12), 스페인(2) 와인이 선택을 받았다.

/smahn1@metroseoul.co.kr

## AI 전문가 영입, 플랫폼 구축 코스맥스 "디지털로 대전환"

디지털 본부 신설, 맞춤 화장품 생산 온·오프 연계한 '옴니채널'도 준비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영업환경을 점차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권업계는 코스맥스의 지난 4분기 실적을 예상치보다 하회한 매출액 3766억원, 영업이익 137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브랜드들의 마케팅이 정상화되면 신규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해 코스맥스가 90년대부터 이어온 R&D 역량을 기반으로, 온라인 전담팀을 꾸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덕분에 코스맥스는 현재 600여 개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로레알, 존슨앤드존슨, LG생활건강 등 굵직한 글로벌 뷰티 기업들이 많다.

코스맥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도 초격차를 위한 주춧돌을 세운다. 혁신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코스맥스'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

먼저 화장품 개발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 글로벌 고객사와 인플루언서까지 사로잡는 플랫폼 '엔드 투 엔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엔드 투 엔드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으로, 고객사와 처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부터

제품이 생산돼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또한, 사장이 직접 디지털사업본부를 신설해 개발 노하우에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한다. 소비층을 세분화해 최적의 상품을 빠르게 개발하고, 디지털 기술로 맞춤형 화장품을 선사하는 생산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코스맥스는 해당 본부의 조직 구성 및 형태를 갖추는 중이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도 준비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14일 "고객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채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소비자 중심의 쇼핑 경험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새 전략들은 코스맥스 설립회 사장과 이병만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코스맥스는 지난 12일 융합산업 분야에 역량이 뛰어난 설원희 전 현대차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신임 설 사장은 컴퓨터공학 석사와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통신사 정보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 현대차그룹 미래혁신기술센터를 거쳤으며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모바일 등에 있어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병만 대표는 이경수 전 코스맥스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상하이교통대학교 E-MBA과정을 마친 뒤 중국에서 생산본부 경력을 쌓다가 코스맥스차이나 마케팅본부장, 해외마케팅 본부 총괄을 맡은 바 있다.

/원은 기자 silverbeauty@

### CJ CGV 청소년 온라인 교원 연수 '두근두근 영화학교' 오픈

CJ CGV가 전국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에서의 영화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CJ CGV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영화로 배우는 직업과 사회-두근두근 영화학교' 교원 연수를 14일 진행,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도 영화 매개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두근두근 영화학교'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두근두근 영화학교'는 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CJ CGV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이다.

CJ CGV는 '두근두근 영화학교'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는 영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가이드와 학생 워크시트가 제공되며, 교사라면 누구든지 다문분야 사용 가능하다. 영화 '갯마을'을 비롯해 '배심원들', '빌리 엘리어트', '윈더' 등 다양한 영화별 교육 자료가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CJ제일제당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 노력 인정

CJ제일제당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제 표준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는 법령과 기업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해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은 국

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잠재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8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준법경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확립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효정 기자

### 정관장 "이번 설엔 면역력 선물하세요"

정관장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1월15일부터 2월14일까지 '올 설에는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올 설엔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담아'라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KGC인삼공사는 올해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 선물을 미리 구매하고자 하

는 소비자들을 위해 1월15일부터 21일까지 '얼리버드 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감사예편 ▲여유보편 ▲감사온편 ▲홍삼톤골드 ▲홍삼톤 ▲홍삼톤청 등 얼리버드 6종 구매 시와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 '정관장몰' 신규가입 및 제품구매 시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조효정 기자



스타벅스 최초 장애인 고용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파트너들.

### 스타벅스, 장애인 인식개선 매장 '성황'

직원 절반 장애인 고용... 호응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의 장애인 인식 개선 매장인 서울대치과병원점이 성황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따르면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강화한 포괄적 디자인을 적용해 지난달 문을 연 서울대치과병원점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호응을 받으며 오픈 한 달을 맞았다.

서울대치과병원점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위치한 매장이다. 스타벅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협력해 장애인 고용 증진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담은 매장이다. 총 12명의 파트너 중 다양한 직급에서 장애인 파트너가 6명이 근무하며 편견 없는 채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스타벅스는 매장 콘셉트 개발 단계에서부터 매장 디자인, 제반 환경, 운영 테스트 등 현재 스타벅스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파트너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색약이 있는 분들을 위해 출입문에서 시작해 메뉴를 주문하고 음료를 받아 가는 동선의 바닥 색을 다르게 표현해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매장 곳곳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함께 받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www.pdna.co.kr

# 연어의 힘으로 빛나다

## P+DNA 세럼 & 크림

3배 강화된 연어DNA로  
광채피부를 경험하세요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동안피부를 위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 「50%」특별할인

P+DNA 런칭 2주년 기념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리지널 제품을  
파격가에 드립니다

(\*sodium DNA 1000ppm)



####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퍼밍**  
프랑스 세더마사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매고롭고 빛나는  
피부결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탄력

#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 070-4870-0708

# 지난해 여수 찾은 관광객 872만명... 1년새 40% 급감

**여수시** 2015년 이후 관광객 첫 감소  
주요 축제·행사 취소 등 영향  
비대면 관광지는 방문객 증가

여수시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난해 여수시 주요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87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박람회 개최 이전 600~700만 명이던 관광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1300~1500만 명을 유지한 이래 최초로 감소한 수치로 2019년 1354만명에 비해 40%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오동도, 엑스포해양공원,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인기관광지 방문객 수도 30~40%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북선축제, 여수불꽃축제 등 주요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고, 관광시설의 잦은 휴관과 입장객 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관광지의 방문객수가



여수시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난해 여수시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87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가사리 생태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문도, 캠핑장 등 비대면 관광지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방문객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철도역, 여객선터미널 등 공무원 24시간 발열 근무, 관광시설 직원 전담제 운영 등 시의 적극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도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5월 황금연휴와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타 도시보다 여수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국내여행 희망 방문지'를 조사한 설문 결과 기초지자체 중에서 여수가 1위를 차지해 국내 최고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조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여수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등, 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비대면 여행트렌드 속에서 탁 트인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연이 가득한 여수가 올해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변화하는 여행트렌드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에 대비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각자 고통을 감내하며 청정 여수 만들기에 동참해 주셔서 관광분야의 타격이 타 지역보다는 다소 적었다"면서 "여수가 세계 속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확충함은 물론, 공영 주차장 확충과 정지와 친절을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관광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metroseoul.co.kr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후원자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면서 전달한 성금 200만원

## 신안군 익명의 천사 200만원 기탁

신안군은 지난 12일 무한의 다리에서 왔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후원자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따뜻하게 사용해 달라면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자는 신문으로 품종 싸맨 200만원을 건네며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이웃돕기 담당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겨울 한파속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따뜻하게 사용해 달라"는 말만 남긴 채 담담하게 자리를 떠났다.

신안군은 익명의 기부자의 뜻을 잘 받아들여 전달받은 후원금을 신안군복지재단에 기탁해 '실 수 있는 한 평의 공간이라도 있다면' 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쓸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재 전남복지재단에서 진행중인 블루SOS의 사례모금운동과 신안군 복지재단 주거지원 사업의 하나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신안군과 민간 복지재단이 함께 협력하여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시는 익명의 기부 천사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 울진군 대계 불법어업자 특별단속

울진군은 올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계 불법어업자를 관내에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계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격상하여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호로 체장미달 대계 포획 위반으로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이상 대계를 포획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계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계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울진(경북)=김귀열 기자



경북도는 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39세이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 경북도, 비대면 산업 채용지원

도내 17개 시군 199명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경상북도는 올 한해 언택트(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비대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청년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산업분야는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며 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2백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해준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하며 도내 17개 시군 총 199명을 지원한다.

이번 비대면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문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고, 3월중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북(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문경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10km 방역대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경상북도는 문경시 농암면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농장에 사육중인 산란계 3만 8000수와 반경 500m 이내 1만 수를 포함하여 전체 4개 농장 22만 8000수를 살처분 조치하고 10km 방역대내 농장

6호, 역학관련 농장 7호 및 사료공장 1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예찰·검사를 실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문경시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에 대해서는 7일간,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문경(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 영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나' 등급

경북도내 최고 등급 성적

영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인 '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전국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총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해 지속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지난 2019년의 평가 '다' 등급에서 3단계 수직 상승한 '나' 등급을 받아 경북도내 최고 등급의 성적을 거뒀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의 '민원행정 관리기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영주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됐다.

으며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고충민원의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욱영 영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감동주는 섬김행정'이라는 시정 목표를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북)=김귀열 기자

## 영양군 밤하늘공원,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자연환경·생태적 보전가치 뛰어나

영양군은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생태관광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운영평가를 거쳐 재지정하고 있다.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의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생태경관보전지



밤하늘보호공원구조물 사진

역, 반딧불이특구,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나, 2018년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운영 평가 결과 재지정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부양의무제’ 폐지... 방배동 모자 비극사건 재발 막는다

서울시, 2300여 가구 복지수혜 위기가구 4단계로 나눠 모니터링 고립 위험도 높은 어르신 가구에 스마트 복지발급 3종 시스템 도입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고독사로 사망한 뒤 5개월 만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부양 가족이 있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300여가구가 새롭

게 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관내 모든 위기가

구를 1~4단계로 나누고, 자치구가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1단계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해 관리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모니터링해 보살펴야 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에 여기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아우를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돼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급 3종 시스템’(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

기대용 광역컨설팅단’도 4월부터 가동한다. 컨설팅단은 알코올중독으로 생명이 위협하지만 지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발달장애 증상이 있음에도 부모가 장애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같이 담당자가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위반 車 9658대 적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달 2회 이상 중복차량 40%, 3916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오전 서울 하늘이 뿌옇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단속 결과 작년 12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 건수는 총 2만7543건으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 차량은 9658대였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를 단속 횟수별로 살펴보면 최대인 21회는 19대, 11회 이상은 365대, 3회 이상은 2074대, 2회는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였다.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고,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된 5등급 차량의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년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의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 취소 처리를 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DPF 미개발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했던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됐으나, 이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차량 단속은 주요 지점 10개

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한해 DPF 부착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며 “또 조기 폐차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여의도 3.5배’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가능해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0만㎡)의 3.5배인 1014만 여㎡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은 김포·고양·파주·양주 등에 걸친 지역이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제한보호구역 1007만3293㎡가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포시 고촌읍 일대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야당동·광탄면 일대 179만6822㎡, 고양시 식사동 등 9개 동 572만5710㎡,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2000㎡ 등이다.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협의로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로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코로나 선제검사... 감염자 150명 조기발견

서울시, 고위험집단 38만여명 대상

서울시는 고위험집단 대상 선제검사를 통해 약 150명의 감염자를 조기에 발굴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폭증세를 꺾기 위해 감염 과급력이 큰 물류업, 콜센터, 요양 시설·요양병원, 대중교통, 영유아 긴급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선제검사를 추진해왔다.

이달 13일 기준 총 38만2802명에 대한 고위험집단 선제검사가 이뤄졌으며

대중교통 종사자 37명(버스 17명, 지하철 20명), 개인·법인 택시 종사자 26명을 포함 총 147명의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됐다.

시는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을 일시 폐쇄 후 소독하고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 접촉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검사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확진환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환경 검체를 실시해 잔여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어 “물류시설 종사자가 확진된 경우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접촉한 물건을 전량 폐기하고, 요양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환자 분류 후 비확진자를 전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집단 선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별 주기적 샘플링 재검사를 진행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거동제한이나 교대 근무로 수검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노숙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물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7749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 해질 / 17:37

1월 15일 (금) 음력 : 12월 3일

수도권 날씨 1~9 °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7, 동두천 -1/8, 가평 -1/7, 파주 -1/7, 서울 1/9, 양평 -2/9, 인천 2/8, 수원 2/9, 용인 2/9, 평택 -1/10

백령도 5/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라이프]  
한파·폭설에  
동장군도 '공공'  
난방가전 불티  
너



Life

[바이오]  
대웅vs메디톡스  
ITC 판결에도  
분쟁 여전  
L2



# 깨물어주고 싶은 상큼함 '가득' 20년 물들인 초록빛 매실음료

국내 최초의 매실 음료인 웅진식품 '초록매실'은 1999년 출시 이후 국내 매실 음료의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사랑받고 있다. 2020년 7월 닐슨 데이터 기준 초록매실은 199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매실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초록매실이 출시한 지 20년이 넘는 장수 브랜드이지만, 아이스크림, 젤리 등 새로운 카테고리 가 불러일으킨 화제성과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최근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웅진식품 '초록매실'

14일 웅진식품에 따르면 초록매실 음료의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3월 휴대성이 강조된 초록매실 340ml 소용량 페트 제품의 출시도 매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500ml 제품이나 1.5l의 중대용량 제품에 비해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첫 매실 음료의 탄생

웅진식품은 1999년,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효능을 파악하여 매실을 음료에 접목한 국내 최초의 매실 음료 '초록매실'을 개발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료인 '매실'은 예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던 먹거리 중 하나로, 술로도 빚고 차로도 만들어 마시던 열매였다. 매실 열매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초록매실 제품 개발 당시 제품명은 사내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 당시 '푸른매실' '참매실' '매실향기' 등이 함께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가장 음료의 컨셉트와 잘 맞는 '초록매실'이 선정됐다.

'초록빛 상큼한 매실음료'라는 뜻의 초록매실은 엄선된 매실 열매의 상큼한 맛과 향, 그리고 발효매실 엑기스의 진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이듬해 드라마 '허준'에서 효능이 언급되면서 매실 음료 열풍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이후 매실음료 인기로 따라 다른 경쟁 브랜드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매실은 현재까지 국내 매실 음료의 대표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웅진식품은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2017년 초록매실 BI를 리뉴얼한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이며 소비자 확대에 나섰다. 새로운 BI는 초록매실의 브랜드 정체성인



초록매실.

익숙한 원료 '매실' 국내 첫 음료 개발  
진하고 상큼한 맛·소화 효능으로 열풍

조성모 광고로 年매출액 1900억 달성  
2014년, 15년만에 모델 재발탁 하기도

아이스크림·젤리 등 다양한 형태 출시  
추억·신선함으로 SNS서 긍정적 반응

초록빛을 유지하면서 보다 현대적으로 디자인됐다. 고급스러운 초록색 톤의 배경에 세련된 서체의 로고와 싱그러움 매실 이미지가 배치됐다. 웅진식품은 BI 리뉴얼과 함께 초록매실의 커뮤니케이션 콘셉트를 '초록빛 상큼한 디저트 음료'로 변경했다. 원료인 매실의 소화 촉진 효능과 디저트 문화의 성장세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음용 연령층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 ◆깨물어 주고 싶은 조성모의 초록매실 광고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 널 깨물어주고 싶어!" 초록매실의 해당 광고 카피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초록매실은 가수 조성모가 출연한 광고로

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당시 조성모는 CF 내에서 "널 깨물어주고 싶어"라는 카피를 상큼하게 소화해, 소비자들로부터 '조매실'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해당 광고가 방영 됐을 때의 연간 매출액은 소비자 가격 기준 1900억원 규모로 당시 콜라의 매출액을 뛰어넘기도 했다. 조성모의 광고 이후에도 김현주, 장나라, 김래원 등 당대 톱스타들을 활용해 빅브랜드로서 초록매실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2014년에는 '조매실'을 추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조성모를 15년 만에 초록매실의 모델로 재발탁한 바 있다. 깨물어주고 싶은 상큼함을 코믹하게 재현한 광고 영상과 함께 제품 라벨에 그가 그려진 스페셜 에디션 2종을 선보였다. 유튜브에 공개된 광고 영상은 2주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넘기는 등 신선한 인기몰이를 하며 수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베스트셀러 초록매실의 카테고리 확장

최근 초록매실은 음료가 아닌 아이스크림, 젤리 등 새로운 카테고리도 변신하며 다시금 소비자들에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웅진식품 베스트셀러 제품인 아침햇살 아이스바와 함께 초록매실 아이스바를 새롭게 선보였다. 초록매실 아이스바는 초록매실 특유의 상큼함을 그대로 살렸으며, 안에 사각사각 씹히는 시원한 얼음 알갱이가 들어있어 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 좋다.

초록매실 아이스바는 추억의 음료가 새로운 형태인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조성모 초록매실 꽃남자편 광고.

기존에 제품을 음용하던 소비자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소비자층에게는 신선함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며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 자발적인 리뷰가 생성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쌓이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초록매실 아이스크림은 출시 이후 약 200만개 이상 판매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최근에는 '초록매실 젤리'를 출시하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초록매실 젤리는 지난 아이스바에 이어 맛과 재미를 모두 살린 이색적인 형태로 출시됐다. 깨물어주고 싶은 초록매실의 상큼함을 쫄깃한 젤리로 구현해냈으며, 반투명한 젤리 속에 또 다른 젤리가 숨어있어 먹는 재미도 더했다.

앞서 웅진식품은 초록매실의 카테고리 확장을 위해 2016년 온장 음료 '꿀먹는 초록매실'을 선보이며 겨울철 제품군을 확대했다. 지난 2014년에는 동원F&B와의 협업을 통해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초록매실'을 출시했다. 동원F&B의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에 웅진식품의 '초록매실'을 더한 제품으로, 드링킹 요구르트에 매실 과즙의 상큼함이 더해져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20년 넘게 변함없이 초록매실을 사랑해주신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왼쪽부터)웅진식품 초록매실 아이스크림, 초록매실 젤리, 아침햇살 젤리.



/웅진식품